

다들 물어봐
GOOD PRACTICE 3

3

(aur_i)

들어가며

GOOD
PRACTICE 1

경남 하동

경관행정 우수사례 1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시상제도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우리나라의 국토, 도시, 경관을 품격있고 아름답게 가꾸은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제도이다. 8개 부문 가운데 '경관행정부문'은 일선 행정기관의 창의적인 경관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운영되는 국가차원의 유일한 시상제도이다.

아시아도시경관상(ATA)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 도시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모범적인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에 대한 국제 시상제도이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아시아 지역 내 우수 경관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민관협업과 공감행정으로 일군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에 위치한 화개천변은 2012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과 2015년 경관조례 개정으로 전례 없는 민·관 협업의 경관 보전과 개선의 현장이다. 건축주 입장에서 풍광 좋은 곳은 최고의 입지지만, 하동군민에게는 공동의 자산으로 미래 생존에 직결된다. 이런 혁신의 이면엔 군민의 애향심과 합리적 공감행정이라는 마중물이 있었다. 하동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개천변의 경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으로 거듭났다. 80도 녹차 물 보다 뜨거운 노력을 한 하동을 만나 보자.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GOOD
PRACTICE 2

인천

경관행정 우수사례 2

‘풍경가도 風景佳島’ 168의 가치를 찾다

인천의 도서지역은 168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아름다운 해안이 있으며,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자원이 산재해 있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섬마다 특색 있는 경관이미지 확보와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장소이지만, 관리 부족과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도서경관이 점차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우수 경관의 지속적인 보전과 도서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위하여 그 동안의 인천시가 추진하였던 계획 과정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협업부문 장관상

048


GOOD
PRACTICE 3

서울

경관사업 우수사례 1

서울의 경관과 역사를 기록하다

서울은 그 형태를 기록할만한 도시이다. 서울은 백제의 수도부터 시작한 역사도시이지만, 현대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 탈바꿈한 현대도시이다. 이러한 풍부한 역사의 단층이 극적으로 공존하는 우리 서울의 특징적인 시대상을 발굴하고자 서울시는 1995년부터 5년마다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을 진행해왔다.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사업부문 장관상

 2021
아시아도시경관상

072

GOOD
PRACTICE 4

서울 양천구

경관사업 우수사례 2

공원 리노베이션의 새로운 기준, 양천공원

양천구는 지난 30년 세월을 지닌 양천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공원의 기능을 더하고자 2017년부터 3년간 리노베이션을 시행했다. ‘전국 최초 베이비존 조성’, ‘전국 최초 실내의 통합놀이터 조성’, ‘책심터 조성 및 유출지하수 활용’까지 여러 사업이 중층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양천공원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쉼과 치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021
아시아도시경관상

094

들어가며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장

이세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1. 발간 배경과 기획 의도

「국토경관 GOOD PRACTICE」는 장소중심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경관행정 담당자와 주민 등 관계자들이 경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좋은 지역 경관이 보존·관리·형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2020년 첫 호를 발행하면서 가졌던 기획방향은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전환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해주자는 것이었다.

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일반인들과 경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경관, 우수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관이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기도 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사례집은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경관 관련 시상제도의 수상작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경관 시상제도 수상작들은 타 지자체 및 지역에 모범이 되어 확산, 파급, 활용되기에 우수한 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 수상작에 대한 정보나 내용을 알기란 쉽지 않다.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식과 간략한 보도기사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가 발간하는 「국토경관 GOOD PRACTICE」에서 수상작들의 우수한 선도사례들을 소개하여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일종의 ‘좋은 경관 사례집’인 본서는 크게 ‘경관사업 우수사례’와 ‘경관행정 우수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아시아도시경관상^{ATA} 수상작을 대상으로 하며, 후자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경관행정’ 부문 수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후자는 특히 경관업무를 하고 있는 경관행정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 「국토경관 GOOD PRACTICE 3」에서는 경관사업 우수사례로 2021년 아시아도시경관상^{ATA} 본상 국내 수상작 가운데 ‘서울시 경관기록화 사업’, ‘서울시 양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사례를 담았으며, 경관행정 우수사례로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수상작인 ‘경남 하동군의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과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수상한 ‘인천시 도서지역의 경관관리계획 수립’ 사례를 담았다.

여기서는 본 사례집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대상이자 국내 경관행정과 경관사업 추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두 개의 시상제도를 소개함으로써 「국토경관 GOOD PRACTICE」에서 소개할 수상작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시상제도

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도시 및 경관디자인에 세계적인 정책 조류를 반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잘된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도시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다양한 시설물과 경관사업 및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경관행정 부문은 현재 총 8개 부문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 수상 부문은 시기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5년까지는 ‘공원·녹지·하천, 가로 및 광장, 주거·상업·업무단지 등 3개의 일반부문’과 ‘해외건설, 특별주제 등 2개의 특별부문’으로 운영되어오다, 2016년부터 국토·도시·경관·디자인과 관련한 6개 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서 국토·도시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문화경관, 가로 및 광장, 주거·상업·업무단지, 공공·문화건축물, 공공디자인, 사회기반시설 등 6개의 일반부문’과 1개의 특별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20년부터는 국토·도시디자인을 향상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에 대한 ‘경관행정 부문’이 새롭게 포함되어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수상은 각 부문별로 국토부장관상¹점, 기관장상¹점을 선정하며, 부문에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통령상¹점과 국무총리상¹점을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 부문 변화 연혁

연도	2015	2016	2017~2019	2020~2021
일반 부문	공원·녹지·하천	공원·산림·하천	공원·산림·하천	자연경관
	가로 및 광장	가로 및 광장	가로 및 광장	가로 및 광장
	주거·상업·업무단지	주거·상업·업무단지	주거·상업·업무단지	주거·상업·업무단지
		역사 및 문화건축	역사 및 문화건축	공공·문화건축물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특별 부문	해외건설	해외건설		
	특별 주제	특별 주제	특별 주제	특별 주제
경관 행정 부문				협업
				사업

대한민국 국토대전 특별부문 연도별 주제

저이용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 / 해외건설	2015
우리동네 매력적인 재래시장 / 해외건설	2016
누구나 걷고 싶은 수변문화공간	2017
노후 기성시가지내 일자리창출형 재생공간	2018
도시재생 및 생활 SOC	2019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공간활용사업	2020
골목, 동네,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2021

특별부문의 경우, 사회적·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토·도시·경관 디자인 향상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년 새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유휴공간활용사업’, 2021년에는 ‘골목, 동네,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¹⁾를 주제로 특별부문을 진행하였다.

2.2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경관행정 부문

국토대전의 경관행정 부문은 일선 행정기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 국토대전의 한 부문으로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토대전에 포함되기 이전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우수경관행정상 등의 포상제도 도입에 근거하여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운영되었다.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운영사례를 발굴·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회에 걸쳐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경관학회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경진대회는 2017년에는 29개 기관에서 35개 사례를 공모, 2018년에는 15개 기관에서 17개 사례를 공모, 2019년에는 17개 기관에서 18개 사례를 공모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관행정 부문의 총괄심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1. 2022년에는 ‘탄소중립(저감)을 고려한 지역특화계획’을 주제로 특별부문을 진행하였다.

경관행정부문은 세부적으로는 경관협업과 경관사업 2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²

경관행정 부문은 서류심사 이후 다른 일반부문과 달리 현장심사 대신 행정담당자들의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창의성 및 난이도, 효율성 및 만족도, 확산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공모현황 및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17개 기관에서 총 18개 사례협업 10건, 사업 8건가 공모하였으며, 2021년에는 6개 기관에서 총 7개 사례협업 2건, 사업 5건가 공모하였다. 2021년 공모결과, 협업부문에서는 ‘인천 도서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168개 도서의 가치를 제고’한 인천시 도시경관과가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서간 협력을 통한 도시건축경관위원회 스마트 심의기반을 구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가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사업부문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 도시관리과가 국토부장관상을,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및 도시문화공간을 조성’한 서울시 서초구청이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수상하였다.

경관행정부문 평가항목

구 분	세 부 기 준
창의성 및 난이도	기존 추진방식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추진 과정의 난이도
효율성 및 만족도	추진 사례의 성과 효율성
	민원인 등 행정수요자 만족도 개선효과
확산 가능성	우수사례로 타 기관 활용 가능성



대한민국 국토대전 발표심사(2021) 및 시상식(2020) 모습

- 일반부문의 문화경관과 경관행정부문의 공모대상이 중복되는 점을 해결하고, 통합적 경관을 형성하고자 수립한 종합적·전략적·중장기적 성격의 계획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2022년부터는 경관행정의 세부부문으로 계획부문을 신설하여 협업부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3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경관행정 부문 의의와 과제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개별 공공·문화건축물부터 주거·상업·업무단지, 사회기반시설, 공공디자인, 집합적 단위의 가로 및 광장, 문화경관까지 포괄하여 우리나라 국토·도시·경관 디자인을 향상시킨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한다는 점에서 국토경관 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경관행정 부문은 경관관련 사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적 노력과 과정, 성과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함께 시상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행정력의 차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큰 점, 경관전문 행정인력의 유무에 따라 경관행정력의 편차가 큰 점에 따라 수상하는 지자체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실제 수상작들인 경관계획 수립 이전 시민 참여형 경관자원 조사를 국내 최초로 실시한 당진시 사례,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진상화 및 Virtua Seoul을 통한 경관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시 사례,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도서지역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 인천시 사례 등은 모범적인 선도 사례들로, 충분히 의미 있고 타 지역에서 도입하여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관행정의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발굴·확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경관행정 업무는 우리 국토와 지역의 경관향상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경관사업을 통한 공간변화에 비해 성과가 두드러지거나 주목받기 어렵다. 국토대전에서 경관행정 부문은 경관행정 담당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시상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부문 수상작 사례

3. 아시아도시경관상 (Asian Townscape Awards)

3.1 아시아도시경관상(ATA) 개요

아시아도시경관상^{이하} ATA은 아시아 도시들을 대상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경관관련 국제시상제도이다. ATA는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타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을 시상하고자 추진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한국}, UN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아시아 해비타트협회^{중국},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일본},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일본}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아시아 지역 내 우수 경관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ATA는 건축공간연구원을 제외한 위의 4개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회의로부터 시작했다. 2006년 8월 이들 4개 기관은 정기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 제4회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에서 아시아 해비타트협회가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관연구를 제안하였다. UN과 후쿠오카시의 지원을 받아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에서 2009년 마을경관(Townscape)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Asian Townscape Promotion Program”을 추진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는 2010년 4월 제1회 ATA를 개최하였고, 시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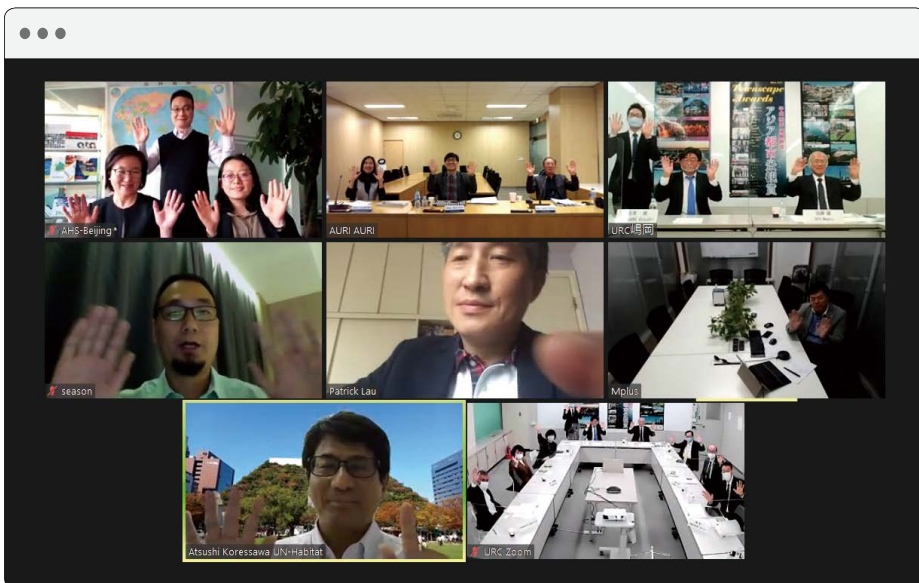
3.2 아시아도시경관상(ATA)의 운영체계 및 공모현황

ATA는 5개 주최기관이 한국,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도시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심사를 진행하여 본상후보작을 선정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한국 도시들의 모집과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현장심사 후보를 선정하고,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본상후보작을 선정하고 있다.

전체 최종 합동심사에서는 5개 기관의 심사자들이 각국의 본상후보작 모두를 심사하여 최종 본상과 심사위원상을 선정한다. 합동심사에서는 각국의 심사자들의 사전심사 점수를 토대로 각국의 심사위원장이 해당 도시·지역들의 후보작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거쳐 최종심사를 진행한다. 본상후보작들에 대해 순위는 매기지 않으며 최종 본상과 심사위원상 수상 여부를 결정한다.

매년 연말에는 공동 주관단체들이 그해 본상을 수상한 도시 혹은 단체들의 대표를 초대하여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상과 함께 작품 소개와 전시를 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통하여 아시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 도시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매년 본심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하였고, 시상식은 일본 후쿠오카, 중국 은천, 홍콩 등에서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본심은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시상식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국내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는 건축공간연구원이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국내 시상식을 따로 개최하고 있다.

심사방법	유엔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건축공간연구원
					
총괄기획 Management Office	ATA 권위 확보	사무국 총괄 예산확보 등	사무국 지원	ATA 전문성 확보	
모집/접수 Application	아시아 내 (한·중·일 제외) 홍보/모집/접수	중국 내 홍보/모집/접수	일본 내 홍보/모집/접수		한국 내 홍보/모집/접수
예비심사 (지역전형) Preliminary Selections	아시아 출품작 (한·중·일 제외) 예선 심사	중국 출품작 예선 심사	일본 출품작 예선 심사		한국 출품작 예선 심사
합동심사 Final Selections	아시아 (한·중·일 제외) 후보작 소개	심사회 소집/개최 중국 후보작 소개	일본 후보작 소개	심사회 총괄 진행	한국 후보작 소개
시상식 Awarding Ceremony	참가	개최도시 선정 기획/홍보/ 예산확보	참가	참가	참가



2020 아시아도시경관상 온라인 합동심사회 모습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으로 참여한 2020년과 2021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0월에 공모 20.08.10.~20.09.18.를 진행한 결과, 총 1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후 최종심사를 통해 본상후보작 4개를 선정하였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부터 군·구 기초지자체까지, 공공사업부터 민간사업까지 다양하게 작품이 접수되었고, 자연경관숲, 하천, 호수 등, 도시경관 건축, 도시재생 등, SOC경관도로, 고가 등 등 사업의 유형이 다양하였다. 본심사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6개국에서 24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국의 예비심사를 거쳐 13개의 안건이 본상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주최기관 및 각국 심사위원은 온라인 합동심사를 통해 총 11개의 본상Asian Townscape Awards와 2개의 심사위원상Jury's Awards를 선정하였다. 본상에는 일본 3개, 한국 3개, 중국 3개, 네팔 1개, 태국 1개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상에는 한국 1개, 중국 1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2021년 아시아도시경관상 한국 국내 공모에서는 광역시, 시, 공사,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9개의 작품을 제출하였다. 1차 국내심사에서 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현장 확인이 필요 없는 한 작품을 제외한 4개의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2차 국내심사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북 영주시, 경기도 김포시가 제출한 4개 작품을 한국 국내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1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본심사위원회에서 일본 3작품, 중국 2작품, 홍콩 1작품, 인도네시아 1작품 그리고 한국 4작품 등 총 11작품이 2021년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3.3 아시아도시경관상(ATA)의 의의와 과제

아시아도시경관상은 평가기준을 통해 우리의 도시와 지역에서 경관을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접근방법과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즉, 지역의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일시적, 단발적이지 않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 지역의 거리와 생활양식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독창적이며 완성도가 높아야 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민과 공감하고 지역의 발전에 공헌해야 하며, 타 도시와 사업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 국가들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지만, 심사기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소위 ‘좋은’ ‘우수한’ 경관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각 도시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기술발전, 의식수준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고, 각 지역들의 특수성이나 변화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요약자료와 각국의 심사위원의 설명을 통해 최종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이자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최종 선정작들을 살펴볼 때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별, 도시별 단순 비교에서 벗어나 해당 국가와 도시의 여건 속에서 선정작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한 아시아의 도시경관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나 지역별로 지역성과 역사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매년 3~4작품이 본상을 수상할 만큼 도시경관의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우수한 도시경관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한 한국 수상작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아시아도시경관상 평가기준

1. 지역환경과 공존하는가?	- Ecological Environment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 Humanities 인간성에 입각한 사업일 것
2. 안전하고 이용자에게 편리하며 지속성이 있는가?	- Safety and Amenity 안전하고 쾌적할 것 - Sustainability 지속성이 있을 것
3.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있는가?	- Continuity 지역의 거리와 생활양식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Cultural Tradition 지역의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룰 것
4. 예술성이 높은가?	- Creativity 독창적이며 완성도가 높을 것 - Beautification 아름다울 것
5.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타도시의 모범이 되는가?	- Contribution 지역의 주민과 공감하고, 지역의 발전에 공헌할 것 - Model Project 타 도시와 사업에 모범이 될 것

2021년 아시아도시경관상 한국 수상작 총평

ATA 한국부문 심사위원장 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

도시의 경관과
역사를 기록하는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서울특별시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이 독특한 점은 매 5년마다 매번 동일한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의 120개소 주요 경관포인트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매 5년마다 새로운 도시경관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주요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도시경관의 정기적 기록과 함께 야간경관의 발굴, 도시경관 데이터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 도시경관의 아카이빙 구축, 검색 웹사이트 및 플랫폼 구축, 시대별 대표경관 및 역사적 의미 발굴, 도시경관 온라인 전시, 새로운 경관기록 테크놀로지의 적용 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도시경관정책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그 자체로 도시경관을 조성하거나 창조하는 물리적 사업은 아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시작한 아시아도시경관상의 본상을 수상한 수많은 아시아의 도시경관 사례 중에도 도시경관을 실제로 조성한 사업이 아닌 사례는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본심사위원회의 해외 도시경관 전문가들로부터 도시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정한 장소의 도시경관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경관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도시경관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인천이나 부산 등 국내 여러 도시의 도시경관기록화사업에도 영향을 주었으나, 서울만큼 정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한 시점에서 몇몇 사람들의 특정한 프로젝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세대를 이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하고 실행을 맡은 서울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 전문가 집단,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 협력해 온 서울시의 도시경관 공무원, 우수한 도시경관 시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한 서울시 역대 시장단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팬데믹 시대 속 공간적 백신, “양천공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공원” 사업이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주거지역에서 30년 이상 이용되어 온 노후 근린공원을 철거하고 새로운 근린공원으로 조성한 사업이 아니라 기존 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면서 낡은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공원의 가치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섬세하게 계획하고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와 실외를 통합한 놀이터를 갖춘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 노후한 야외무대시설을 활용하여 날씨와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놀이공간을 인접하여 조성하였으며, 유니버설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자연소재를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용도를 찾지 못해 그냥 버려지던 주변 건물의 지하 침출수⁴⁰톤/일을 협정을 통해 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계류에 방류함으로써 공원의 경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온도를 저하시켜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휴식과 치유공간을 제공하였다. 저이용되는 특징 없는 아스팔트 광장을 잔디공원으로 바꾸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시설을 통합 조성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북쉘터를 신규 조성함으로써 “양천공원”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좁은 아파트를 벗어나 4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 놀이, 책, 휴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양천구는 “양천공원”의 리모델링을 위해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온라인 의견청취 그리고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모이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 협력적 방식으로 도시경관을 조성한 점도 높이 평가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캐널시티(Canal city) 김포 “금빛수로”

경기도 김포시

2021년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한 김포 “금빛수로”는 한때 농업용수로로 이용되었던 김포대수로를 새로 조성된 한강신도시의 가운데를 흐르는 운하로 활용한 사업이다. 전체 2.68km의 길이를 가진 “금빛수로”는 수변 상업구역인 라베니체(La-veniche), 수변공원인 한강중앙공원, 산책로로 이용되는 리버워크(River Walk) 등 크게 3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라베니체 구간은 “금빛수로”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역으로 운하 양편으로 수변 스트리트 몰, 수변무대, 수변광장, 수상레저시설 그리고 보행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쇼핑과 외식 그리고 문화공연 등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강중앙공원 구간은 “금빛수로”의 가운데 부분으로 각종 수변 레저시설과 편의시설, 음악분수, 물놀이시설, 운동시설, 보행교 및 휴식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수변 산책로로 이용되는 총 1.14km의 길이의 리버워크 구간에는 각종 운동시설, 그늘막, 휴식시설, 보행교가 운하 양편에 조성되어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하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포시 “금빛수로”는 자칫 매립되어 사라질 수도 있었던 농업시대의 유산인 수로를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레저, 휴식, 운동 공간이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목적지가 되는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도시경관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강중앙공원 구간과 리버워크 구간은 김포시가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지만, 라베니체 구간은 이 구간을 개발한 민간회사가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다. 그러므로 “금빛수로”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선형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금빛수로”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타 도시의 도시경관사업에 참조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삼각지마을”

경상북도 영주시

669.94km²의 면적을 가진 영주시는 경상북도의 북쪽에 위치하며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인접하기 때문에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 등 3개의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래 철도교통이 퇴조하면서 현재는 인구 10만 명 정도의 도시로 쇠퇴하고 있다. 영주시 휴천동에 소재하는 “삼각지마을”은 3개의 철도노선이 마을을 에워싸고 지나가는 삼각형 모양의 마을이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지만 철도로 인해 주변 시가지로부터 고립된 도심 속의 오지와 같은 마을로서 노후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낙후된 마을이었다.

영주시는 쇠퇴하는 도시와 “삼각지마을”의 재생을 위해 2008년 국토교통부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을 계기로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삼각지마을의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2009년에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하였고, 2010년에는 디자인관리단^{이후 도시건축관리단으로 변경}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공공건축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선진적인 민관협력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2009년에 수립된 “삼각지마을”의 마스터플랜은 2010년에 국토교통부의 지속사업으로 선정되어 139억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이 실행되었다. 철도로 고립된 마을을 공동체를 위한 열린 도시경관으로 변환하고,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며,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보행자를 위한 녹색 가로경관을 확충하는 세 가지의 공간개념을 설정하였다. 마을 내에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공시설 주변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을 갖춘 광장과 공원 등 수준 높은 공공공간도 대폭 확충하였다. 좁은 골목길을 가진 노후주거지 주변으로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철도 하부에는 인근 마을과 연결되는 연결통로를 개통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영주시는 “삼각지마을”에서 실현된 도시경관사업을 확장하여 현재 북영주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녹색 가로 공원을 조성 중이며, 영주시 중심가를 흐르는 서천과 그 너머 가흥공원까지 이어지는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영주시의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건축관리단이 중심이 되어 수준 높은 공공건축 디자인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가 본받을만한 모범적인 도시경관행정으로 높이 평가된다. “삼각지마을”에 조성된 노인복지관은 2016년 김수근 프리뷰상, 2017년 한국공공건축 대상, 2017년 건축문화상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8년 한국공공건축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수한 도시경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2020 ATA 수상작_서울특별시, 서울숲공원



서울숲공원



서울숲공원



서울숲공원



2020 ATA 수상작_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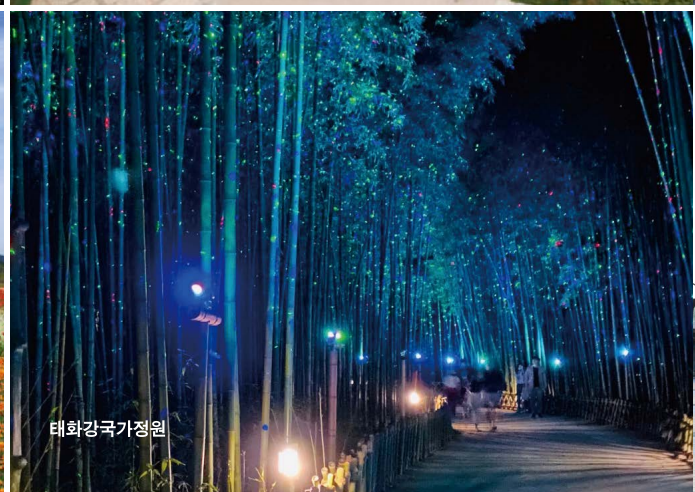
© 안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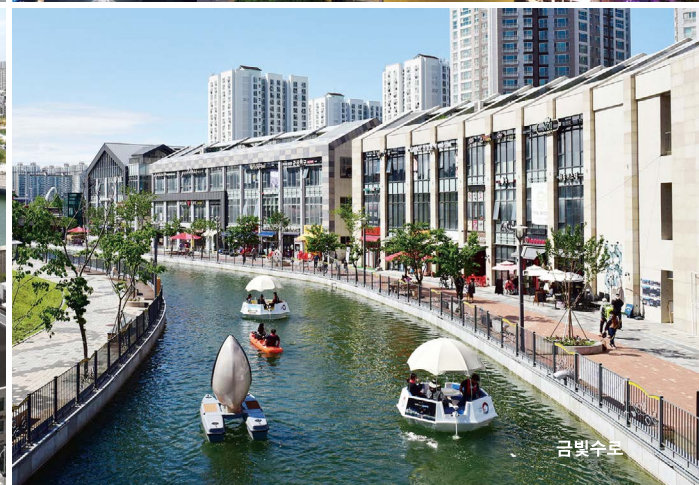
태화강국가정원



태화강국가정원



태화강국가정원



GOOD
PRACTICE 1

경관행정 우수사례 1

경남 하동

민관협업과 공감행정으로 일군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대상지 면적

약 2.65km² (L=5.3km, 화개로와 쌍계로
사이 및 주변일대)

사업(계획) 기간

기본경관계획수립 계획기간:

2010.7~2012.5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기간:

2015년~현재

참여 주체

하동군 공무원, 경관위원회, 건축주 등

참여자 다수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에 위치한 화개천변은 2012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과 2015년 경관조례 개정으로 전례 없는 민·관 협업의 경관 보전과 개선의 현장이다. 건축주 입장에서 풍광 좋은 곳은 최고의 입지지만, 하동군민에겐 공동의 자산으로 미래 생존에 직결된다. 이런 혁신의 이면엔 군민의 애향심과 합리적 공감행정이라는 마중물이 있었다. 하동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개천변의 경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으로 거듭났다. 80도 녹차 물 보다 뜨거운 노력을 한 하동을 만나 보자.

민관협업과 공감행정으로 일군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

1. 경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

우리는 압축성장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 국토 곳곳에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뿐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화 사회를 이루었다. 반면 초고속 경제성장의 바탕이었던 우리의 국토 환경과 경관은 그 속도만큼이나 파괴되고 획일화되어 몰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림자를 인식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조성하여 경제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하고자 2007년 「경관법」을 제정했다. 경관법은 2013년 전부개정을 거쳐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형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경관은 개인이 전유하는 사적 재산으로 여겨왔으나, 「경관법」 제정을 계기로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 자산으로 그 가치가 높아졌다. 특히,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응하여 경관자원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산으로 가치가 주목된다. 이제는 이러한 경관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지역 경관자원을 활용하는 경관의 계획과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관관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인위적인 방식보다는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에 기반을 둔 자발



1. 2013년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적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어 시행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하동군은 2013년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¹ 대상이 아님에도 2012년 선도적으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 대한민국 경관대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2015년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거쳐 「하동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2층 이상, 높이 6m 이상 건축물’ 하동읍은 4층, 12m이상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여 하동의 특성에 맞게 경관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은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전례 없는 민관협업의 경관 보전·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리산 너머 작은 지자체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은 도시·농촌·자연이 어우러진 우수한 문화경관을 형성한 사례로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지는 섬진강 본류 어귀 화개장터와 지리산국립공원이 맞닿은 화개천변 양안 길이 9km의 화개천변 일대이다. 이곳은 화개장터 주변의 시가지 경관과 세계농업유산 야생차밭,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진 곳이다. 좋은 경관자원을 지닌 만큼 세심한 경관관리와 적극적 경관 형성이 절실한 곳이다.

이런 현실에서 하동군은 화개천변 양안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관계획의 원칙을 세우고 세심한 경관심의회와 선제적 경관행정을 펼치는 등 건강한 민·



관·전문가의 경관형성 노력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가꾸었다. 이 글에 서는 이런 하동군 경관행정의 모범 현장의 속살을 헤집어 다른 지자체에서 제2, 제3의 화개천변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절박함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2. 소멸위기 하동, 그 절박함을 담은 경관계획

하동군은 2013년 인구소멸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발표} 0.295로 '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0.182로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1년 9월에는 행정안전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포함되었다.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할 수준으로 소멸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절박함이 뚜렷하다.

하동군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 지역으로 병풍처럼 둘러싼 지리산과 섬진강변 평야에 남해 바다를 안고 있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은 지자체이다. 산지가 많고 도시지역은 2.64%에 불과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천혜의 산과 강, 바다를 끼고 있어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2021년 7월 현재 외국인을 포함하여 44,419명의 인구이지만, 1965년엔 인구 14만 명의 튼실한 지자체였다. 이런 하동이 이촌향도의 도시화를 겪으면서 점점 쇠락하여 이제는 1/3 인구에 재정자립도 8%도 안 되는 상황이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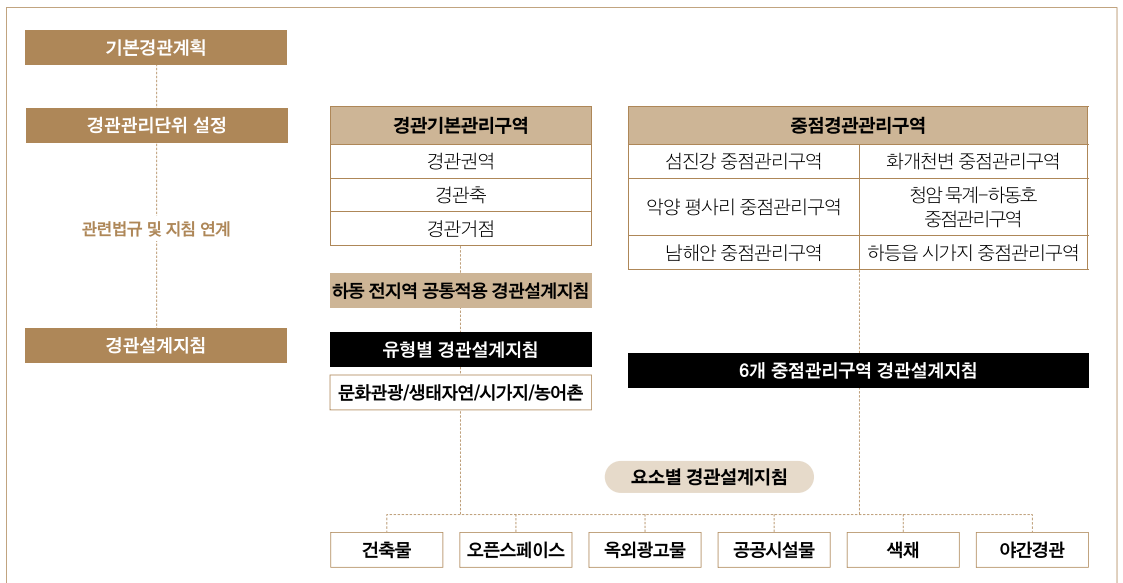
이런 현실에서 하동군은 경관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하동군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예견한 듯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방화시대 하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동경관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은 하동의 3대 경관 관리구역에 6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촘촘한 요소별 경관지침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자원을 보전·창조하고 다양한 인공경관자원을 관리·형성하는 기본틀을 제공하였다.

이런 경관계획은 고유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경관을 관리하며, 특성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경관보전은 우수한 경관 자원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해 풍부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여 현시점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관관리 및 정비는 기존의 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관리를 위한 경관기본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적극 운영하며, 경관 저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경관형성은 경관 유형별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지역 관광화로 인한 경관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특성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관계획은 먼저 경관자원의 조사로부터 시작했다. 경관구조 분석을 통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가시권 분석을 통해 특성파악과 경관 민감지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관관리의 기초 단위로서 읍·면단위의 표준모형을 구상하고, 이를 전제로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전체 기본계획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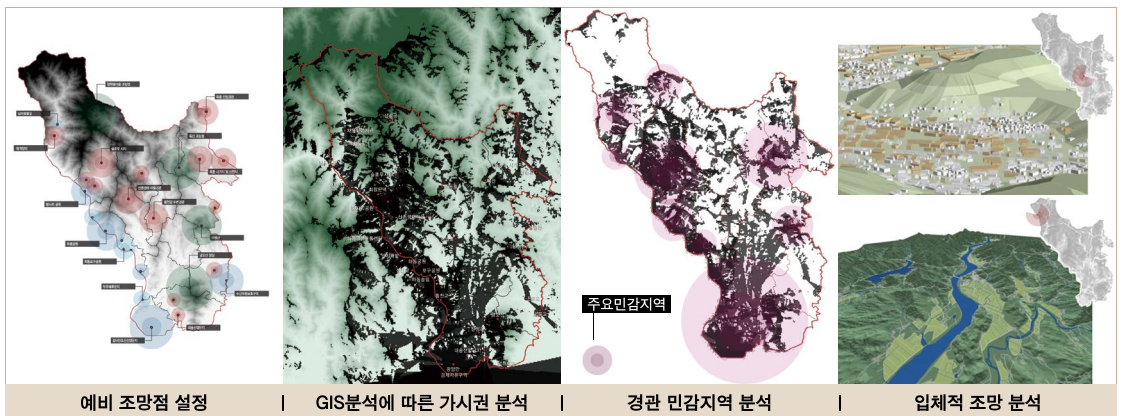
읍·면별 경관계획은 해당지역의 경관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관형성을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정체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민대상의 설문과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동행탐방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종합하는 읍면사무소 지역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읍면단위 경관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적이다.

하동군 경관기본계획의 경관관리 단위



출처: 하동군(2012, p.97.)

하동 경관구조 분석을 위한 경관 기초조사



출처: 하동군(2012, pp.65, 67,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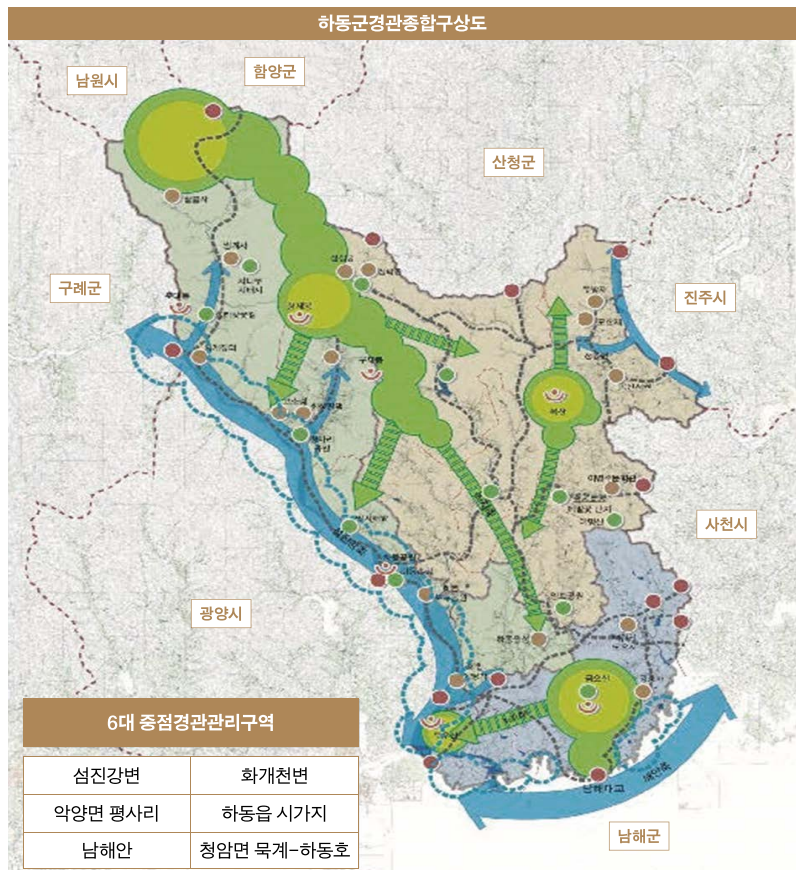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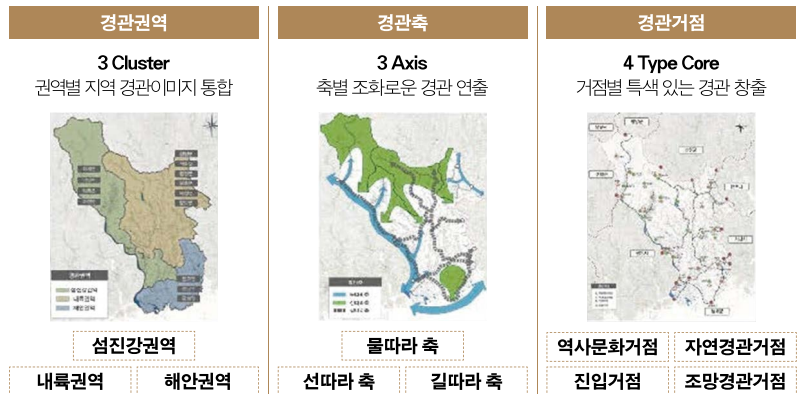
예를 들어 화개면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을 거쳐 경관과제로 경관자원의 연계 강화, 수변 접근성 및 자연성 개선, 마을 입구의 경관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건축물 경관관리, 4계절 관광 요소 발굴, 기본 취락지 및 판매시설 등의 경관개선, 주요 도로 및 교량 경관 관리, 개발 사업지와 연계한 마을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화개장터, 화개천, 십리벚꽃길, 관광, 건강함, 녹차시배지, 계절별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위의 과정을 토대로 "길 따라 천 따라 계절 따라 다양한 즐거움과 볼거리가 피어나는 화개면"이라는 경관관리 방향을 수립하였다.

화개면 경관관리의 구상 및 계획



위와 같은 분석과 구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유형별, 중점경관관리구역별,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경관조례, 관련 교육과 경관사업과 협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안한 점이 특징적이다. “자연의 감동이 미래로 굽이치는 아름다운 하동”이라는 미래상을 마련하고 3대 경관권역, 3대 경관축, 4개 경관거점에 6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담은 기본경관계획이 탄생하였으며, 미래 하동 경관과 발전의 나침반이 되었다.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의 경관 권역·축·거점 및 종합구상도



3. 도서지역 경관계획의 단계별 추진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특성 강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각 구역은 목표, 방향, 경관지침, 관리방향을 담은 계획을 담고 있다. 하동군은 경관 권역과 축, 거점을 고려하여 6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섬진강변, 화개천변, 악양면 평사리, 하동을 시가지, 남해안, 청암면 목계-하동호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경관 자원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정량적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서술형 지침으로 경관을 구성하고, 설계요소에 대해 권장과 지양을 예시하는 등의 경관설계지침(안)을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로 제시되는 경관지침은 시가지형, 농어촌형, 생태자연형, 문화관광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경관관리로 다양한 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관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경관(협정)사업의 승인 우선순위로 마련하였다.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집중적인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곳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관지침으로 유도하고,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와 경관위원회 심의로 적극 관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을 추진하여 선도적인 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경관계획 실행계획을 준비한 점도 우수하다.

화개천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녹차 밭과 십리벚꽃길 등 경관자원을 보호하여 고유한 자연경관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며, 접근성과 이용성 높은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역사문화 및 관광거점간의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경관거점을 조성하고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곳의 비전은 ‘역사와 생태가 어울리는 화개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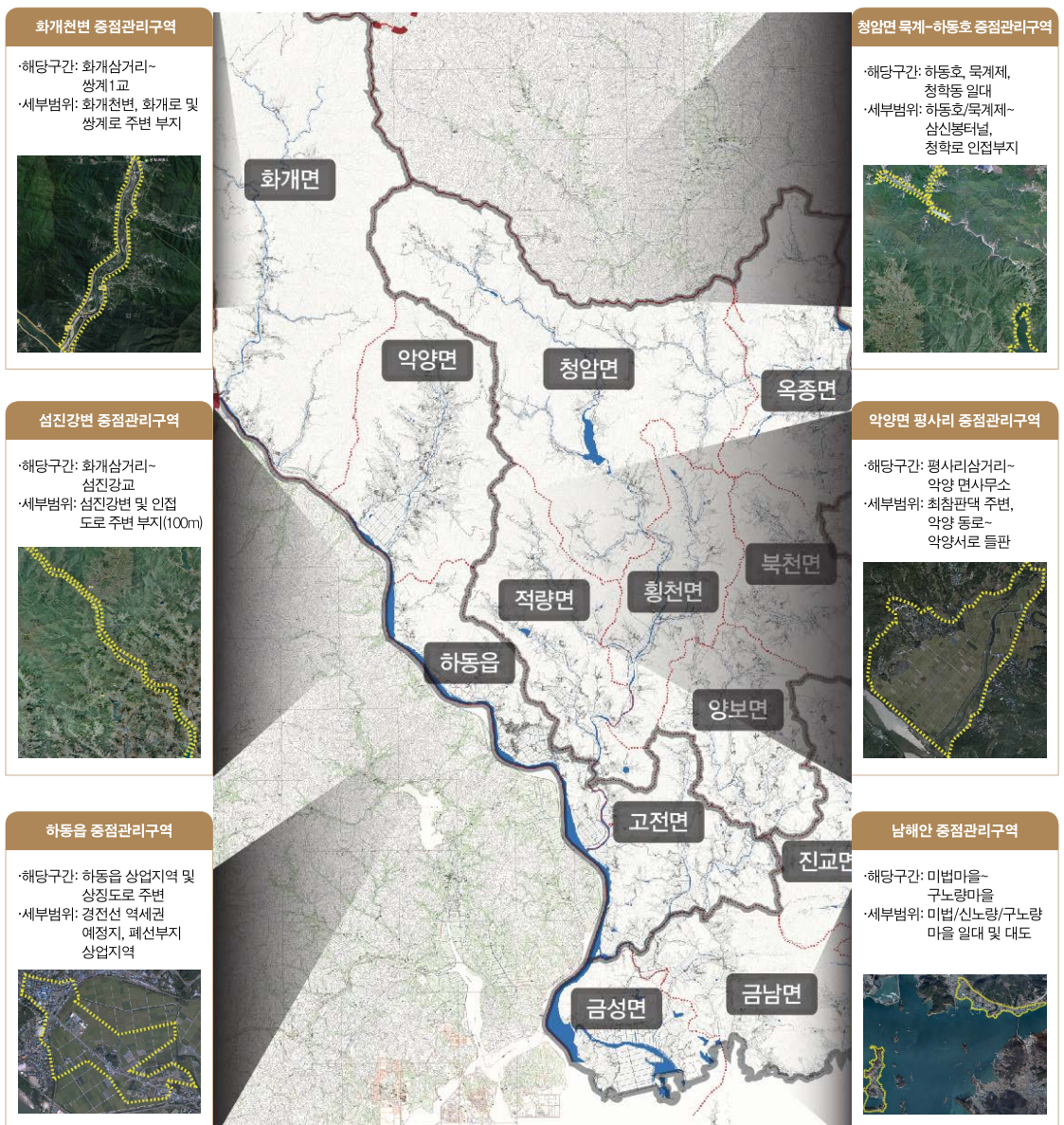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주야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화개천변 십리벚꽃 모습

출처: 하동군 제공

이를 위해 하동군은 설계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종 경관심의와 개발행위 검토 시 활용하였다. 즉, 역사·생태가 어우러지고 자연과 조화된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자연적 소재 및 저채도 색상으로 자연경관을 부각하였다. 화개천을 조망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부감이 조화로운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며, 주변 임야의 훼손에 의한 경관 변화를 지양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각 설계요소 건축물, 공공공간,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에 대해 권장·필수·지양으로 예시를 제시하였다.

하동군 6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위치도



또한 경관지침에서 화개천 어귀인 1구간은 관문으로 인근 도·군과의 만남과 화합을 강조하고, 화개장터의 역사적 가치가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며, 물과 사람이 가까운 활기찬 경관을 연출하였다. 중심 구간인 2구간은 녹차밭과 벚꽃길 등 자연경관 요소를 가까이에 향유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며, 쌍계사와 둘레길 등 역사·관광자원과 적극 연계하고, 하천 인접부는 하천을 향해 열린 경관을 형성하여 하천경관 및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3구간에 대해서는 화개천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및 시설물의 경관형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화개천변 지역은 경관 기본구상 단계에서 화개천과 섬진강의 합류부에서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부에 이르는 양안 폭 0.5km, 길이 9km를 대상으로 구상하였다. 하지만,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1구간, 2구간에 집중하고, 경관 취약성이 높은 화개로지방도 1023와 쌍계로지방도 1014에 접한 부분과 두 길의 사이 영역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세심히 관리하도록 고시하였다.



화개천 어귀와 화개장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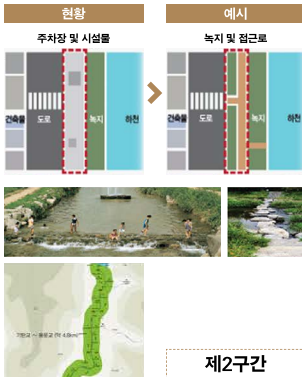
출처: 하동군 제공

화개천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기본구상 및 구간별 계획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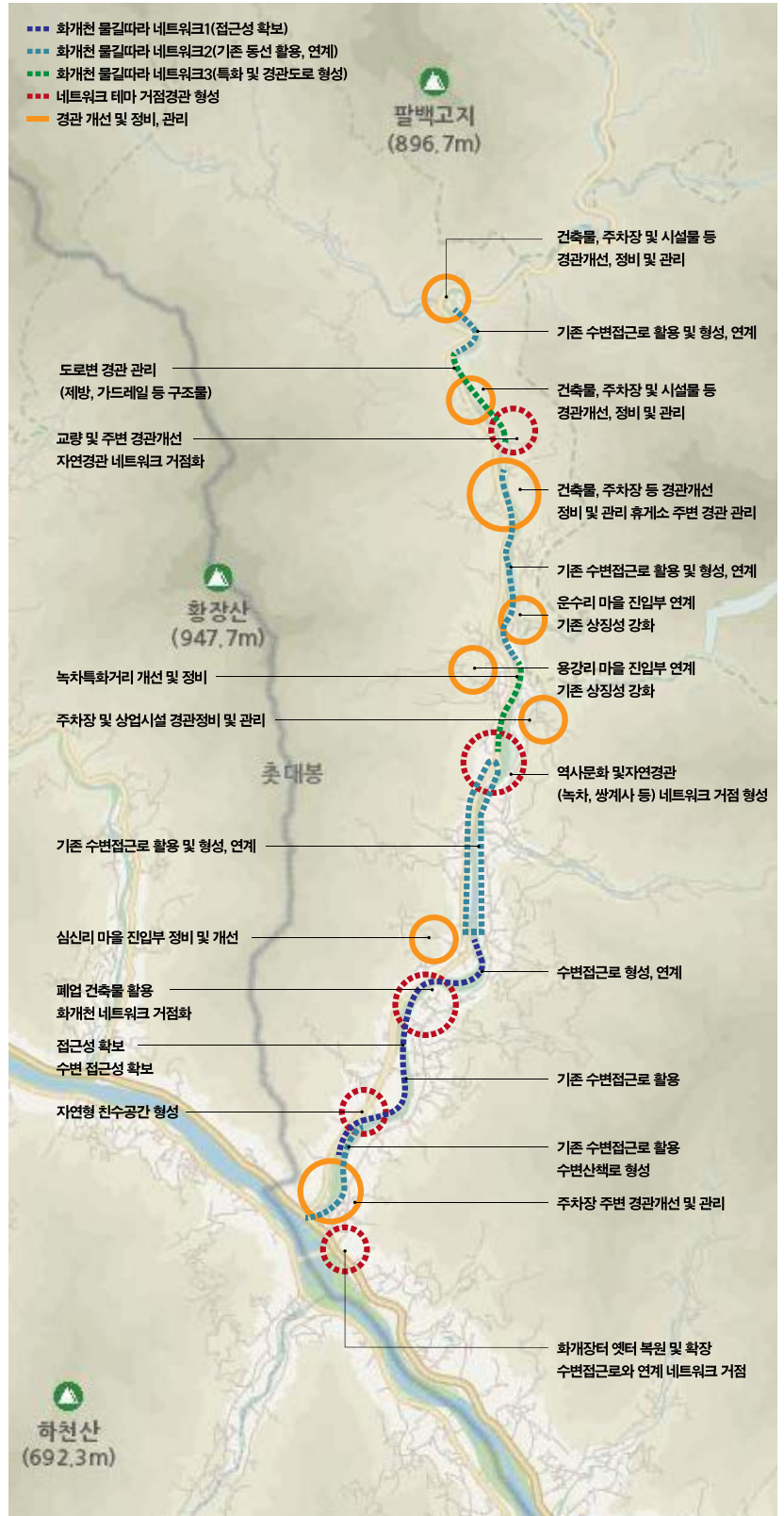
- 화개천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및 시설물 경관 형성
(건축물 입면 및 지붕의 재질, 색채를 통한 경관 개선)
- 제방, 옹벽, 가드레일 등 구조물의 정비,
친환경 공법 활용
- 도로와 하천의 높이차로 인한 차량 위주의
접근을 보완(보행 및 자전거길 등 확보)



- 녹차밭과 실리벚꽃길, 화개의 아름다운 경관
(물길따라, 꽃길따라 자연을 가까이 향유,
접근성 확보)
- 쌍계사와 돌레길 등 역사, 관광자원과 연계
- 도로를 중심으로 하천쪽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물 설치 등 지압(하천을 향해 열린경관 형성,
녹화 및 접근성 강화)



- 하동의 관문이자 도, 군의 만남과 화합
- 화개장터의 역사적 가치가 반영된 경관
- 물과 사람이 가까운 활기넘치는 경관



4. 경관심의 운영체계와 운영결과 분석

경관심의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면 심의대상 여부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은 경관관리 체계로 실행된다. 심의대상의 경우 경관위원회에 상정하며,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검토과정에서 '민·관·전문가에 의해 경관검토'가 이루어지는 장치를 마련한 점이 특별하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경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여 건축물의 배치·규모·형태·입면계획을 비롯한 외부공간계획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과 야간경관계획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경관관리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동군의 촘촘한 경관관리체계에서는 경관형성 실행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규제'로만 인식되었고, 살생부와 같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민·관·전문가의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접근과 동시에 '내 고장 하동 발전'이라는 애향심에 호소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흔히 관리하지 않은 자연경관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지만, 고갯길 굽이굽이 하나 둘 쌓아 생겨난 돌탑처럼 지나가는 이들의 소망과 바람이 곳곳에 담겨 이곳에 새롭게 자리 잡은 건물들은 명물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 하동의 경관으로 생명력이 생생할 것이다.

하동군이 본격적으로 경관위원회를 운영한 2015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상정 건수는 총 214건이었다. 이 중 화개천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78건^{3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섬진강변과 하동읍지역 56건^{26.2%}이다. 대체로 코로나사태 이전에 화개천변이 압도적이었지만, 2019년을 변곡점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구역에서 건수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축인허가 신청에 따른 경관관리 체계도



경관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조건부가결'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원안가결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관심의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경관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높아져 심의 상정시 경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실제 상정된 안건의 신청 건축물의 경관 인식 수준이 차수를 거듭하면서 경험이 쌓여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개천변의 안건 사례에서 심의의결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순으로 경관측면에서 질적 수준이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는 검토할 사항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일정 수준을 이르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건부가결 판정을 내려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가결은 처음부터 안건의 수준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앞서 재심의 등의 판정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경관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등군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위원회 상정안건(심의·자문 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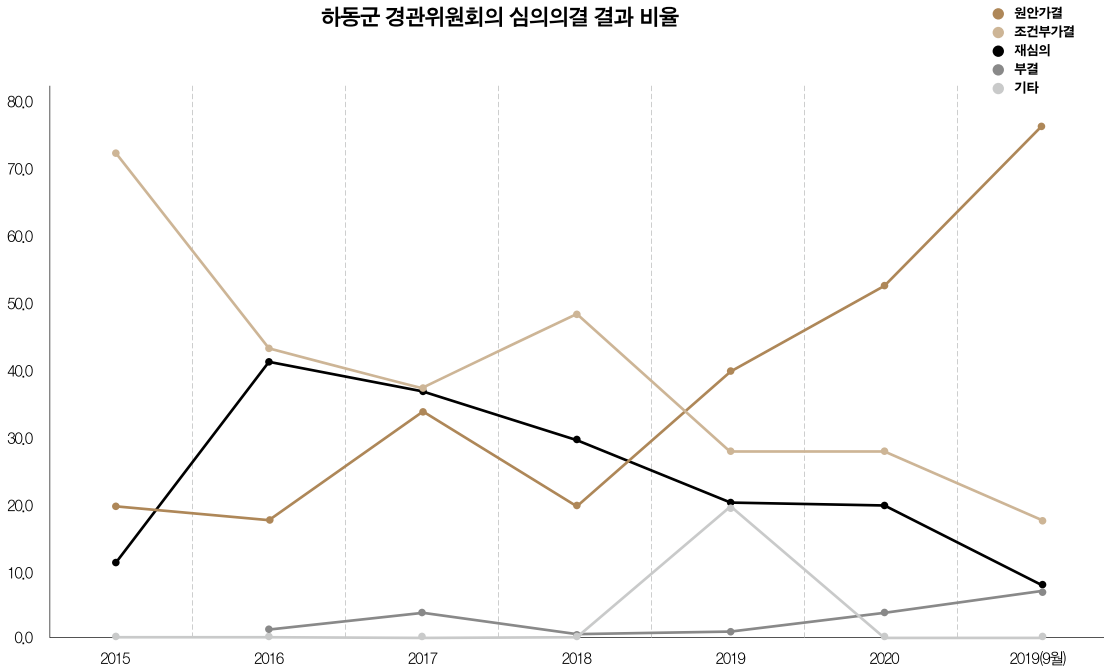
구분		화개천변	섬진강변 + 하동읍	남해안	악양평사리	청암면	계
2015	건수	9	10	6	2	0	27
	%	33.3	37.0	22.2	7.4	0.0	100.0
2016	건수	11	4	6	4	1	26
	%	42.3	15.4	23.1	15.4	3.8	100.0
2017	건수	21	7	6	8	0	42
	%	50	16.7	14.3	19.0	0	100
2018	건수	17	6	5	4	0	32
	%	53.1	18.8	15.6	12.5	0	100
2019	건수	6	8	1	6	1	22
	%	27.3	36.4	4.5	27.3	4.5	100.0
2020	건수	11	14	9	9	4	47
	%	23.4	29.8	19.1	19.1	8.5	100.0
2021	건수	5	7	0	4	3	19
	%	26.3	36.8	0.0	21.1	15.8	100.0
계		80	56	33	37	9	214

하동군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표

년도	건수 (건, %)		원안가결 (건, %)		반영 후 시행	검토사항 반영시행	조건부 의결	재심의	재검토	재검토 의결	전반적인 디자인 수정보완	부결(반려) (건, %)		미심의	보류
					조건부 가결(건, %)			재심의(건, %)						기타(건, %)	
2015	27	100	5	18,5	19	70,4		3		11,1		0	0,0	0	0,0
2016	25	100	4	16,0	11	44,0		10		40,0		0	0,0	0	0,0
2017	42	100	13	31,0	14	33,3		14		33,3		1	2,4	0	0,0
2018	32	100	6	18,8	16	50,0		10		31,25		0	0,0	0	0,0
2019	22	100	10	45,5	6	27,3		3		13,6		0	0,0	3	13,6
2020	47	100	27	57,4	13	27,7		6		12,8		1	2,1	0	0,0
2021 9월까지	19	100	14	73,7	3	15,8		1		5,3		1	5,3	0	0,0
계	214	100	79	100	82	100		47		100		3	100	3	100

출처: 배웅규(2021, p.55.)

하동군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비율



출처: 배웅규(2021, p.55.)

화개천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상정안건의 심의의결 작품 예시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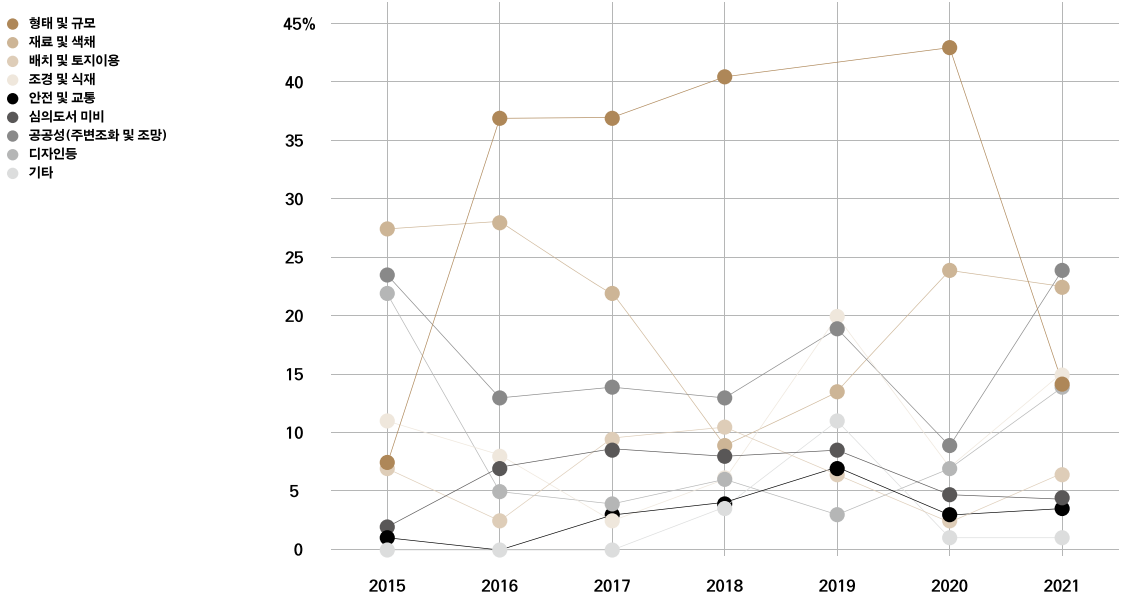
재심의



하동군 경관위원회 심의의견 내용별 분류

주요 심의의견 내용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형태 및 규모 · 2층 돌출부분 위압감 보완 · 외부매스 간결하게 정리 필요 · 건물의 높이조절 등	575	18	7.5	44	37.0	117	37.4	146	40.3	15	11.1	201	41.8	34	12.8
재료 및 색채 · 자연친화적 외장재료 사용 주변과 조화 · 건물 색채가 딱딱하게 느껴짐 · 측벽부 그라운드 색체계획 단순화 고려 등	361	67	27.9	34	28.6	67	21.4	33	9.1	12	13.3	116	24.1	32	21.6
배치 및 토지이용 · 도로 및 주차장 고려한 배치계획 · 가로변 조정, 주차 등 외부공간 계획수립 · 절성토 대지 건축 배치 재검토	113	17	7.1	2	1.7	30	9.6	38	10.5	6	6.7	11	2.3	9	6.1
조경 및 식재 · 건물 전면 마당을 조경으로 변경 · 조경 식재 및 수종을 표현 할 것 · 가로수 관리대책 마련 필요 등	137	26	10.8	10	8.4	7	2.2	22	6.1	18	20	33	6.9	21	14.2
안전 및 교통 · 택시 승강장 측 2m 셋백 보도 확보 · 마을 안길 옆 도로 쪽 여유 공간 확보 · 사업 대상지 경사가 심함 등 다수	49	1	0.4	0	0	8	2.6	16	4.4	6	6.7	13	2.7	5	3.4
심의도서 미비 · 설계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 경관심의를 위한 정확한 설계도서 제출 · 현장을 알 수 있는 심의도서 제출 수	104	4	1.7	8	6.7	27	8.6	28	7.7	8	9.0	23	4.8	6	4.1
공공성 (주변조화, 및 조망)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고려 · 주변조화 고려하여 건축형태 재검토 등 · 주요지점에서 근·중·원경 경관 검토 · 주변지역과 경관 및 조망권 침해 우려 등	237	55	22.9	15	12.6	43	13.7	47	13.0	12	19.0	45	9.4	20	23.7
디자인등 · 주출입구 특화디자인 요구 · 과도한 디자인보다 단순화된 디자인요망 · 이용자 측면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148	52	21.7	6	5.0	14	4.5	21	5.8	3	3.3	33	6.9	19	12.8
기타 · 문화재 검토대상지역으로 확인 필요 · 기존 녹차밭 훼손 최소화 시공 권고 · 기본적인 예산검토 필요 등 다수	29	0	0	0	0	0	0	11	3.0	10	11.1	6	1.3	2	1.4
총계	1,753	240	100	119	100	313	100	362	100	90	100	481	100	148	100

하동군 경관위원회 심의의견 내용의 비율 변화 추이



지난 수년간 하동군 경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상정 안건별로 제시된 심의의견은 1,753개이고 건당 8.2개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체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경관을 개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시행 초기는 재료 및 색채, 형태 및 규모, 공공성, 디자인 등에 관심이 많았으나, 이후 형태 및 규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경관의 측면에서 주변과 어울리고 조화되기 위해서는 형태, 규모, 재료, 색채, 조경 등에 대한 관리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 건축물이 사업신청자의 개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조망을 보호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자산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개천변의 사례 중 가장 많은 심의 횟수로 확인된 삼신리 근린생활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경관을 고려하는 하동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최초 2018년 심의 시 적극 경관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 반영, 조망점 고려,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하는 재심의가 판정되고, 이후 자문과 보류 과정을 거쳐, 2019년에 조건부가결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사업 추진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철회를 한 차례 한 후 다시 심의 상정하여 조건부 가결을 받은 상태이다. 이 같은 여섯 차례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매 차례 제시된 안건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나, 경관위원회의 경관 형성 의지에 부응하여 계획안을 보완하고 조건부 가결을 얻은 점에서 하동군의 화개천변의 경관관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삼신리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사례

2018년
(6회차)

- 현장여건 반영된 자료 제출
- 쌍둥이 주택의 단지 조성 → 다양성 반영 필요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매스가 단지 경관 차단하고 있어 계획 검토 필요
-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옹벽부분 처리 정확히 제시
- 현장상황(공사 전)과 건축계획과의 맥락을 알 수 있는 심의도서 제출
- 사업대상지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디자인 필요
- 전면 근린생활시설이 후면 다세대주택의 전면을 가리고 있음
- 도로면에서의 조망점에서 시야가 필로티 공간 하부만 보여 재검토 필요
- 사업대상지 경사가 너무 심함
- 근린생활시설이 경관을 가려 다세대주택이 거의 보이지 않음
- 다세대주택의 건물 층수를 줄이고 2층으로 배치 검토
- 설계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 시점별로 정확한 시뮬레이션 제시
- 1층 필로티 부분 검토, 상가건물 재검토

재심의

2018년
(10회차)

- 현장의 대지 경사 및 토목계획 수검 후 설계도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라는 검토의견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경사지에 입지하므로 주위와 조화되고 시각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비탈면 훼손에 대한 복구방안과 적절한 식재계획이 필요함
- 주택단지의 경관 검토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사업부지 전체의 개발계획, 조경, 담장, 도로 등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조려해야 하나 제출도서로는 검토가 곤란하므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 후 재검토 요망
- 신청부지의 경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신청서류에는 경사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경사도 검토 및 경관심의를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망

자문

2019년
(1회차)

-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전문가 참석으로 결정함
- 현장 검토 필요
- 설계도서(경사도, 조감도 검토 필요)
-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때 현장 심의 진행
- 산지 전문가 참석
- 현장점검 후 의견 결정
- 개발행위(산지, 토공) 사전 검토 및 전문가 참여
- 종합적인 사항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함
- 해당지가 급경사로 개발행위를 검토하여 해당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보류



2019년
(2회차)

- 단독주택지 계획은 친환경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조경, 옹벽, 단지 내 자연물, 바위 등)
- 상가계획은 건축적으로 문제점을 보임으로 전면 재계획 검토가 필요함(지형을 활용한 배치 및 건축계획 수립)
-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도로에서의 진입이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것을 고려바람
- 단독주택 옹지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부지 조성을 해주시기 바람
- 단지 내 도로 조성 시 경사도 고려해서 진출입에 원활을 기해주시기 바람, 과도한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원형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계획으로 변경
- 전면 근린생활시설은 전면 도로와의 고저차가 크고 도로 가시권에서 공사 전경이 훼손 우려 크므로 개선책 필요
- 각 세대별 전면 노출되는 옹벽을 최소화 할 것

조건부가결



2019년
(4회차)

- 당일 불참
- 사업계획 철회로 인해 경관심의신청 철회 의사 표명

미심의

2020년
(12회차)

- 건축부지 경사각 토목공사 및 도로 진입로 회전각 세심한 검토 요함
- 건물 자체는 지하 1층, 지상 1층이나 경사가 급한 부지에 위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크고 웅장해보임
- 주변 경사 및 안전상 문제가 없고, 차폐 조경을 한다면 가능할 것임
- 건물 매스가 43.2m(주 건축물 30m)의 가로형 단순 블록화하여 건너편 도로 가시권에서의 느낌을 너무 단순한 구조물로의 느낌이 강하므로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요망(하부 필로티 층을 수목에 의한 시야차단, 상부 건축물만 노출시 너무 단순화 함)
- 구조적 중간 바 1~2개를 설치 시 세로 바 검토

조건부가결



5. 화개천변 경관관리의 실행과 성과

하동군은 촘촘한 경관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이 할 수 있는 선제적 경관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 화개천변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동군은 2012년 ‘기본경관계획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 ‘화개천변 난개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격적인 경관 관리에 나섰다. 그 결과 경관 보전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 경관행정이 전개되었으며, 2016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화개장터 주변 층수제한을 4층에서 2층으로 낮추고, 형태와 색채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에는 세계농업유산정규채밭의 경관보전을 위해 화개천 양안의 화개로와 쌍계로의 일부 구간에 전선 지중화사업 L=618m를 추진하였다.

그 중 경관위원회는 실효적인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세심한 경관관리를 위해 심의 안건은 물론 개발행위 경관검토에 있어서도 경관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현장심의 등을 통한 군민 공감대 확대에 노력했다. 아울러, 엄격한 경관행정과 군민의 애향심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 타 시군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공감대도 형성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화개천변 경관을 형성하였다.

2021년 9월 현재 화개천변은 경관위원회 상정 안건이 78건으로 여섯 개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건축행위가 가장 활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의적인 경관창출을 위해 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에 대해 여러 차례의 심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차시배지의 경관보전을 위해 신청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청인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등 경관관리를 위한 하동군의 눈물겨운 노력은 매우 특별하다.

특히 경관심의과정에서 생생한 현장심의도 병행하여 대상지의 경관 특성을 살리고, 건축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 여러 차례의 심도 깊은 심의와 현장 논의를 거쳐 낡은 건물과 방치된 땅에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때로는 애향심에 호소하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축을 포기하도록 하고, 다른 부지로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관 보전을 위한 절박한 행정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관 관리를 위한 하동군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화개천변은 <2016년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의 대상을 배출하는 결과를 이끌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루 방문객 4,000명에 달하는 카페를 배출하는 등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또한 경관심의를 거듭하면서 경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이제는 재심의보다 원안가결의 비중도 크게 높아지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는 건물이 선별되어 한 점 한 점 화개천변에 채워지면서 화개천변은 위드코로나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화개천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보전 위한 난개발 방지대책과 전선지중화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출처: 하동군 제공

여러 차례 심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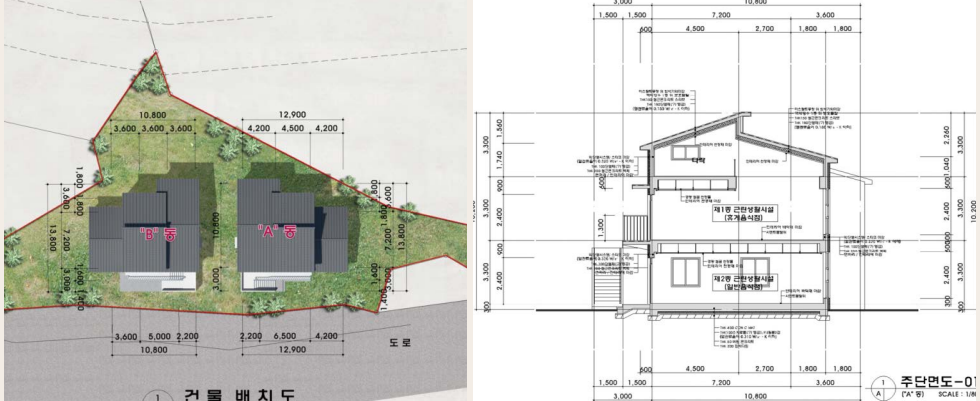
출처: 하동군 제공

경관관리에 따른 건축 전·후의 모습 비교

	사업 전	사업 후
▶ 탐리 쌍계명차		
▶ 삼신리 더로드102		
▶ 삼신리 브리지 130		
▶ 운수리 양생차웰니스케어센터		

출처: 하동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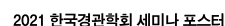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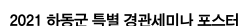
차 시배지 보전을 위해 재심의 후 건축허가를 취한 사례

구분	내 용	
건축 개요	위치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대지면적 1,189㎡)
	규모	건축면적 325.59㎡ 연면적 585.36㎡
		건폐율 27.38%, 용적률 49.23%
건축 계획 안	조감 및 입면도	
		

출처: 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당시 수상소감에서 살생부 수준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절박함 얘기하면서 100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경관 관리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관관리 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관·전문가의 건강한 경관관리와 함께 진한 군민 공감대 속 양방향 경관 형성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하동군은 그치지 않고 더욱 도약하기 위해 (사)한국경관학회와 함께 <2021 하동군 특별경관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경관학회도 <인구소멸지역에서 경관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드코로나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활성화 수단으로 경관 가치의 고양과 경관 자원의 활용에 나서고 있다. 하동의 사례에서는 경관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차세대 지역 재생의 동력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출처: 하동군 제공

하동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협업적 경관관리는 경관계획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실행력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과 형성은 단순히 강한 규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하는 가운데 관련 주체들이 손을 맞잡아야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공공의 선제적 마중물과 민간의 건전한 제안이 만나면서 시너지가 발휘되어 지역의 경관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경관 자립의 공식을 널리 보급하여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거 민간주도의 개발에 따른 수동적 경관형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범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실효적 역할과 선제적 마중물을 통해 개발과 경관의 균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국토경관의 향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경관자원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멸위기와 지역쇠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과 경관이 상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경관행정을 펼칠 절실한 시점이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경관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경관의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경관 향상을 위해 경관계획이라는 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등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관관리의 참여주체를 공공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하는 경관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관형성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끝으로 바람직한 경관관리는 고유한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관은 지역의 정체성 제고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미래 성장 동력임이 분명하다. 위드코로나시대이자 인구소멸을 겪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의 고유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이런 모범적인 경관 만들기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실행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동군의 사례는 그 시작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배웅규.(2021). 하동군 경관행정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운영성과. 하동군 특별 경관세미나. 「국토경관향상을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성과와 전망」.pp.45-63.
- 배웅규. 화개천 따라 살려낸 지리산 정취 ... 하동군 숨길이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2021.7.5.(23면). <https://www.fnnews.com/todaypaper?webCode=fnn&date=20210705#images-preview-23> (검색일: 2022.8.11.).
- 배웅규. 심사평: 합리적 규제와 원칙이 수려한 화개천변 가꾸. 파이낸셜뉴스. 2021.7.15. (특별판 3면). <https://www.fnnews.com/todaypaper?webCode=fnn&date=20210715#images-preview2-3>(검색일: 2022.8.11.).
- 하동군.(2012). 2025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 하동군.(2021).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등 행정 자료.

GOOD
PRACTICE 2

경관행정 우수사례 2

인천

風 景 佳 島

‘풍경가도’ 168의 가치를 찾다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협업부문 장관상

김흥원 주무관

인천광역시청 도시경관과

대상지 면적

유·무인도 168개소
(유인도 40, 무인도 128)

계획 기간

2019년도(계획년도), 2030년도(목표년도)

참여 주체

도서주민, 시민, 관계부서 및 기관, 전문가 등

인천의 도서지역은 168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아름다운 해안이 있으며,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자원이 산재해 있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섬마다 특색 있는 경관이미지 확보와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장소이지만, 관리 부족과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도서경관이 점차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우수 경관의 지속적인 보전과 도서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위하여 그 동안의 인천시가 추진하였던 계획 과정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풍경가도 風景佳島 168의 가치를 찾다



1. 도서지역 경관계획의 수립 배경

인천의 도서지역은 168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아름다운 해안이 있으며, 해양관광과 레저휴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누구나 쉽게 당일치기로도 섬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우수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도서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인천의 경관은 내륙과 도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특성이 있으며, 16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지역의 독특한 경관은 해양 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며 도서지역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찾는 주된 목적인 우수 경관의 지속적인 보전과 도서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경관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관광 활성화가 점차 요구되고 있다.

도서지역에는 천연기념물, 지질자원, 문화재, 향토유적 등 우수한 경관자원이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관계법에 따른 규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만 있을 뿐 통합적인 관점에서 경관을 관리하고 형성하는 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도서지역이 지닌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각종 개발과 인공시설의 경관을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내·외부인에게 매력적인 경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서지역의 특징적인 경관 단위별 관리계획과 실질적인 실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경관 훼손 문제 대두



↓ 경관 변화



도서지역 경관관리 실태 조사(2013, 2017)
결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 관리 부족에 의해
도서지역 가치 하락

도서지역 경관가치 증대



VS



168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천 도서지역의
독특한 경관은
해양도시 정체성과 가치 확립에
중요자원으로 인식

도서지역 경관 관리 수단 부재



↓ 경관 변화



우수 경관자원의 보전과 각종 개발 및
인공시설 경관의 관리를 위하여
단위별 경관 관리 계획
및 실행 수단 마련 필요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 마련 및
선도적 경관 실행계획 수립

2. 도서지역 경관계획의 수립 필요성

도서지역은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도서의 낙후성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해 도서 주민의 삶과 경제, 생태환경 등 커뮤니티를 지속하기 위해 도서지역의 경관관리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지구,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등 경관계획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대다수가 도시경관 위주로 수립되어 있다. 도서지역의 경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서지역에 대한 경관관리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구조의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경관 사업의 추진,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관계획의 목적 및 내용, 계획의 수준, 수립 주체에 따라 '도 경관계획, 시·군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특정경관계획'은 수립 주체의 단위와 관련되지 않고 도·시·군 모두 필요한 특정 대상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13년 「경관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존의 '2025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인천만의 경관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고자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은 인천시 전체 지역 8구 2군, 1읍 19면 129동, 168개 도서 40개 유인도서 + 128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단위의 경관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군·구 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기본방향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는 도서지역 전체 경관에 대한 관리 방향, 세부전략, 사업계획 등은 담겨있지 않았다. 매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경관 관련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었으나,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산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한 도서경관 자원이 훼손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도서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특성화하고 자연 생태경관을 자원화하는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하였으며, 인천의 대표 자원 중 하나로 도서지역만의 특징을 고려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였다.

3. 도서지역 경관계획의 단계별 추진

인천시는 2013년부터 도서지역의 경관 관련 정책 및 제도와 경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화군, 옹진군 등 9개 도서지역의 취락지역과 주요 관광지 일원을 중심으로 '도서지역 경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자연에 순응한 개발이나 우수경관이 잘 보전된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도서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확인되었다.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오래되고 낙후된 건축물의 방치, 도서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각종 인공시설물의 난립, 생활 쓰레기 적치, 방치된 해수욕장 등이다.

이에 인천시는 섬별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에 '도서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하였다. 본 용역에서는 기존 9개 유인도서에서 40개 유인도서 7개 연륙 도서 + 33개 유인도서로 확대하여 기존에 부족하였던 섬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 및 일원화하고, 도서지역 경관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관광객, 지역주민, 행정담당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서경관에 대한 의식조사와 자문 등을 거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40개 도서지역의 다양한 경관자원 보유 및 분포현황, 도서별 잠재적 스토리 자원, 도서진입경관, 도서별 중점 저해 요인을 조사하고, 도면화 작업과 DB를 구축하였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별 경관구조, 경관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중점장소를 선정하고 중점장소별 경관 현황 및 계획대상을 도출하여 시범사업을 선정, 실시하였고, 2019년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서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



최종보고회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단계별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과정

1차 도서지역 경관 관리 실태조사 보고(2013) 추진목적 도서지역 경관계획 수립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사전 조사(강화군, 옹진군 내 9개 유인도서)						
2차 전국 최초 도서경관 기초조사 및 시범 사업 발굴 용역 추진(2016~2017) 추진목적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 군·구 DB 및 사업 방식 제공(인천광역시군 관내 40개 유인도서)						
3차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2017~2019) 추진목적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의 실행전략에 따라 경관 관리 기반 구축(인천광역시 관내 40개 유인도서, 128개 무인도서)						
경관(관리)계획 수립		경관 가이드라인 제공			실행수단 마련	
추진전략별 경관계획		도서지역 공통 가이드라인		특화경관형성구역 가이드라인		도서 경관 관리 제도
우수경관 보전	자연생태자원	유인도 (40개소)	자연생태지역	도서진출입 특화경관형성 (19개소)	선착장	관련법 및 계획 연계관리
	역사문화자원		도서진출입지역		도서연결로	
	향토문화자원		역사문화지역	해안풍경 특화경관형성 (10개소)	용유도	경관심의 및 자문
미관저해경관 관리	자연훼손지		관광휴양지역		강화도	
	가로환경	무인도 (17개소)	주민생활지역		대무의도	경관사업 추진
	건축물		자연생태지역		소무의도	
특화경관 형성	도서진출입특화경관		도서진출입지역	역사문화 특화경관형성 (18개소)	덕적도	경관협정
	해안풍경특화경관		관광휴양지역		강화도 (해양관광유적지)	
	역사문화특화경관					전문자 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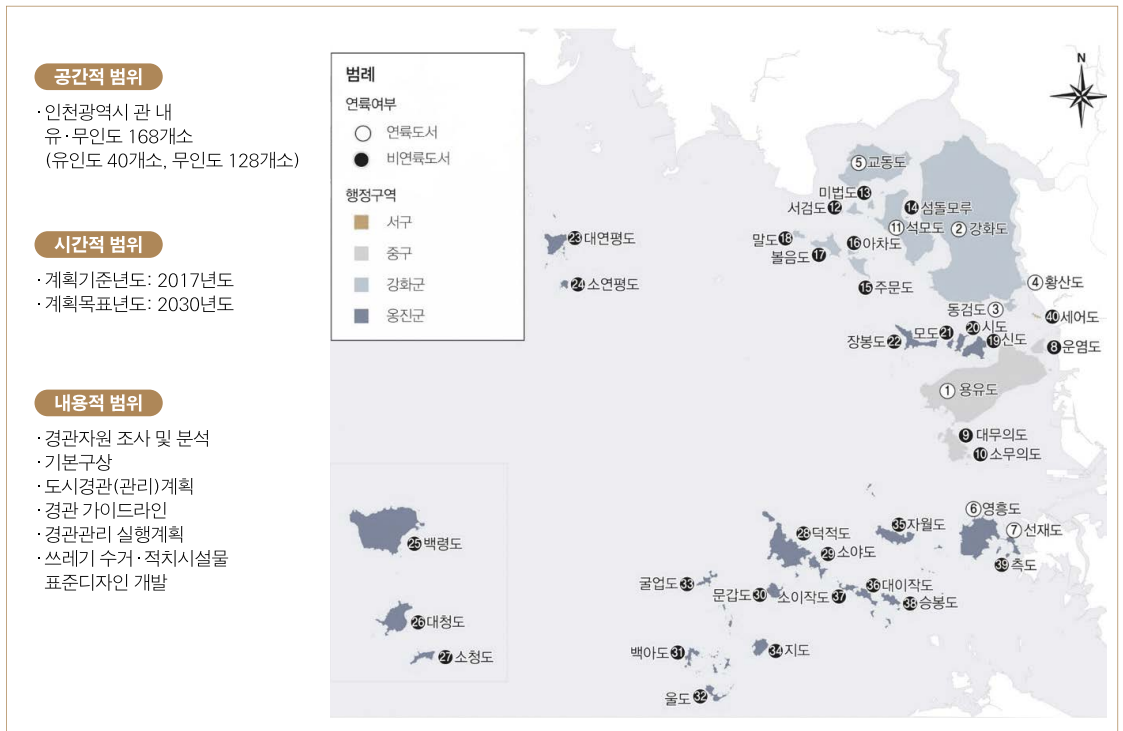
또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19년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시 중점장소별 특징과 문제점을 고려한 인천 도서지역에 적합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을 도모하고,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수립, 중점경관관리지역 선정, 건축물 및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경관 요소별 세부사업 발굴에 활용하였다.

4. 「경관법」에 근거한 도서지역 경관계획의 수립

인천시는 도서지역의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2019년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내용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도서지역 기본구상 제시,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 도서지역 경관설계지침 및 경관관리 실행계획 작성과 더불어, 현황 조사 및 각종 의견수렴 절차에서 공통으로 대두된 쓰레기 문제 개선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및 적치 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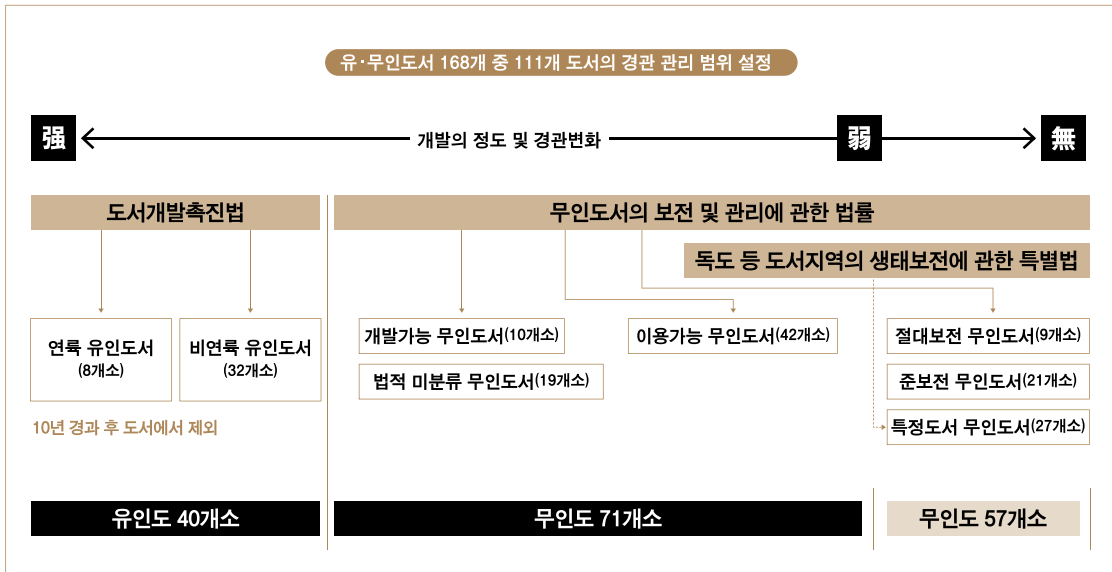


2017년 계획 수립 이후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내용은 「경관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호」를 따르되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계획의 공간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하는 총 168개 유·무인도서(유인도서 40개소, 무인도서 128개소) 중 관계 법령에 따른 경관관리 대상 도서를 선정하여 계획하였다.

다만, 도서지역은 그 수가 많고 육지와 연결된 연륙 도서로부터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는 도서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도서경관 관리를 위해 도서지역을 분류하고 관리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근거법상 도서의 개발 및 이용 가능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도서부터 경관관리가 필요한 도서, 법적 규제를 통한 절대적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는 도서 등 도서지역 경관관리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다.

먼저 과업의 공간적 범위인 168개의 도서를 도서 여건에 관한 법규에 따라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분류하였다. 유인도서는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하여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 여부에 따라 연륙 도서와 비 연륙 도서로 분류하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10년이 지나간 연륙 도서는 도서에서 제외되지만, 도서지역의 풍경과 정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서지역 경관관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도서지역의 경관관리 범위 설정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인천지역 도서 주민 간담회



인천 섬 포럼 및 워크숍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무인도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와 경관 관련 타 사업 및 관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개발 가능 무인도서, 이용 가능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다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보전 무인도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는 인위적인 경관 변화가 불가하므로 도서지역 경관관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유형 분리되지 않은 채 법적 관리수단이 없는 미등록 무인도서는 도서지역 경관관리의 범위에 포함하고, 개발 가능 무인도서와 동등한 경관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인천시에 소재하는 111개 유·무인도서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은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⁴회, 중간보고, 경관의식조사⁵행정가 713부, 도서 주민 342부, 방문객 513부, 도서 주민 간담회⁵회, 관련 기관 및 실과 의견청취,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섬 포럼 및 워크숍^{2회},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관의식조사를 통해 도서경관의 문제점에 대한 주체별 인식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행정가 및 방문객은 난잡한 해수욕장과 주변 사업시설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서 주민은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문제로 인식하였다. 조화로운 해안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공간 특성에서 도출되는 요소의 조화로운 경관관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5. 도서지역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인천시는 도서지역의 경관 미래상을 “풍경가도 인천”으로 설정하였다. 풍경가도는 ‘풍경이 아름다운 섬’을 뜻하며, 앞으로 도서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3대 경관계획 목표로 설정하였다.

5.1 목표 1. 도서지역 고유의 우수 자연 보전으로 ‘아름다운 섬 만들기’

‘아름다운 섬’은 도서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주변을 조화롭게 가꿔 원풍경을 보전하는 계획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자연경관 자원에 해당하는 육지구역 구릉지, 산림과 해역해안숲, 백사장, 갯벌, 지질자원의 자원생태자원과 문화재, 향토문화자원과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름다운 섬을 만드는 경관자원들은 보존 상태 유지 및 훼손지 복원, 각종 개발 시 관리수단에 의한 관리 시행을 통해 도서지역 고유의 정취를 지속시켜 후세에 남겨 줄 경관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5.2 목표 2. 도서 주민의 생활경관 개선으로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살고 싶은 섬’은 주민 거주공간의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경관 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주민 거주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 미관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및 공공공간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도서주민을 위한 경관복지 차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주민 경제 소득원 창출을 위한 관광자원 및 문화경관 형성 등 경관관리가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연평도 마을 전경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



5.3 목표 3. 특색 있고 매력적인 특화경관 형성으로 ‘찾고 싶은 섬 만들기’

‘찾고 싶은 섬’은 도서지역 중 접근성, 인지도, 방문율 등이 높은 지역의 경관 저해 요인을 개선하고 경관 특화를 통해 장소적 가치를 증진하는 계획이다. 도서 진·출입, 해안풍경, 역사문화 세 가지 주제로 특화경관 형성구역을 선정하여 계획하였다. 우선 선정된 특화경관 형성구역은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선도적으로 경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9대 추진 전략으로 ▲ 우수 자연경관 자원 보존 및 특성화, ▲ 자연 훼손지 복원, ▲ 인천 도서 풍경가도 형성,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경관 구축, ▲ 주민 공동 이용공간 문화사업 시행, ▲ 미관저해시설 경관관리수단 마련, ▲ 도서 진·출입 특화경관 형성, ▲ 해안풍경 특화경관 형성, ▲ 역사문화 특화경관 형성 등을 마련하였다.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경관미래상

풍경가도, 인천



3대 목표

아름다운 섬

도서지역 고유의
원풍경 경관보전

살고싶은 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미관저해시설의 경관 관리

찾고싶은 섬

특색 있고 매력적인
특화경관 형성

9대 추진전략

· 우수 자연경관자원 보존 및 특성화
· 자연훼손지 복원
· 인천 도서 풍경가도 형성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경관 구축
· 주민공동 이용공간 문화사업 시행
· 미관저해시설 경관관리수단 마련

· 도서진출입 특화경관형성
· 해안풍경 특화경관 형성
· 역사문화 특화경관 형성



또한, 도서지역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 미래상, 추진 전략 등의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과 유·무인도서에서 개발되는 각종 공공 및 민간사업 시행 시 통합적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종 사업시행 시 참고하도록 계획하였다.

도서지역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사업시행자와 도서 주민이 인허가 또는 심의 절차 시, 신청서 및 협의·심의 자료 작성 시 자가 점검 및 체크리스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가와 경관위원회는 각종 사업의 검토 및 협의, 심의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경관 기준으로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와 도서 주민의 신청서 협의·심의 자료를 감리, 감독, 평가하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도서지역 각 경관 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공통 경관가이드라인(자연생태지역/도서 진·출입지역/역사문화지역/관광휴양지역/주민생활지역, 무인도서 경관가이드라인 개발 가능 무인도서/이용 가능 무인도서, 도서 진·출입 특화경관 형성구역 경관가이드라인 선착장/도서연결로, 해안풍경 특화경관 형성구역 경관가이드라인 해수욕장/해변, 역사문화 특화경관 형성구역 경관가이드라인 관방유적 등 5개 경관가이드라인으로 세분화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계획 및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6. 도서지역 경관관리 운영 및 실행제도 제공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고유경관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후 도서지역의 경관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다. 낙후되었던 도서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지역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도서가 보유한 고유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사업으로 연계된 것을 볼 수 있다.

우수 사례지역의 사업내용은 개발 위주가 아닌 기존 생활공간과 문화를 활용하거나 콘텐츠가 두드러질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었다. 도서지역의 물리적인 정비·개선·조성 등과 관련한 사업보다는 도서지역의 홍보 체계 구축 및 생태자연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휴먼웨어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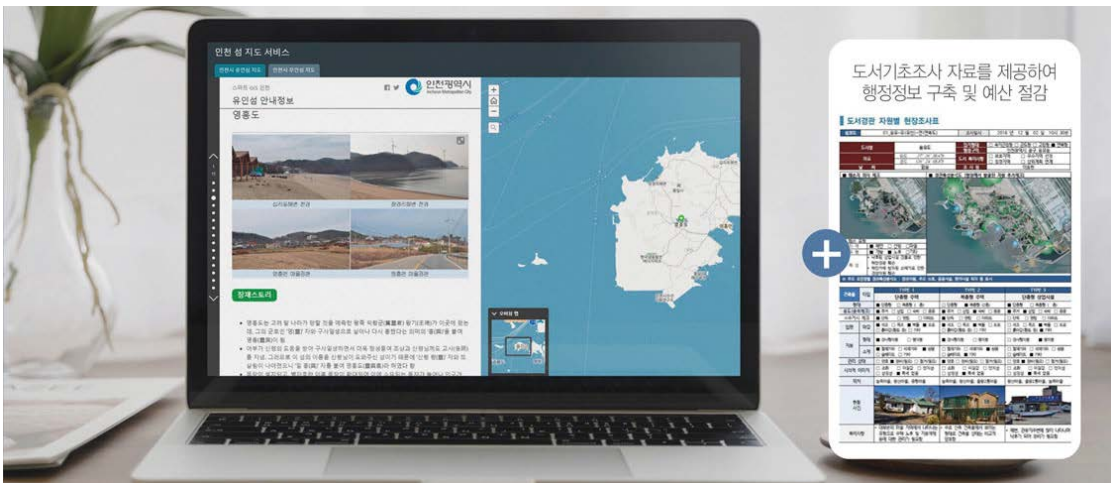
인천시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경관의 보전과 관리,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관관리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지역의 다양한 사업 여건과 사업 전략을 고려한 경관관리 및 지원제도, 시범사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다. 행정가, 사업시행자, 도서 주민들과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DB 데이터베이스를 관련 부서와 협업 스마트도시담당관, 도서지원과 등을 통해 표준화된 도서지역 기초조사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GIS 인천 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 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도서지역 경관관리 운영 및 실행제도 추진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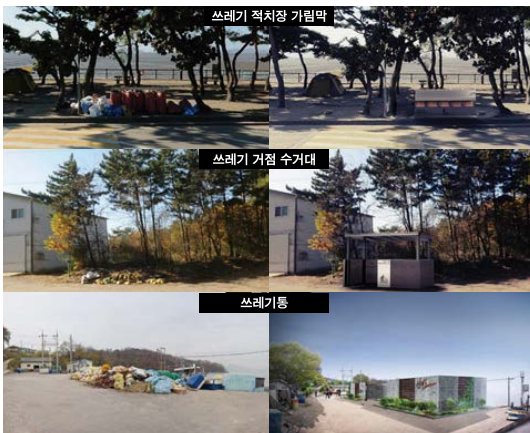
도서지역 기초자료 GIS 지도 서비스 제공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도서지역 쓰레기 관련 표준디자인 및 캠페인 제공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적치 시설물 4종 표준디자인 개발



깨끗한 섬 문화 정착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제안

쓰레기 봉투 표준디자인을 활용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문화 시행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경관행정 지원제도 홍보·교육자료 제공

경관행정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경관행정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 실시



도시경관 자가 체크리스트 제공

행정 사업시행자, 주민들을 위한 도시경관 자가 체크리스트 제공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각각의 사업을 상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도서지역 기초조사 자료 DB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도서지역의 경관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논의되었던 쓰레기 해결방안으로 수거 및 적치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제공하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해안경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도서지역 경관 가치를 높이고 관련 계획의 실천력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가, 주민, 사업가 대상의 세미나, 아카데미, 워크숍, 캠페인 등 정기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경관법과의 정합성 유지 및 도서지역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 조정, 조례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지역 특성상 경관관리가 불가한 곳에 대한 디자인 지원제도 등을 제시하여 군·구에 전파하여 경관관리 방안 마련하였다.

여섯 번째로 공공주도의 경관 사업 추진의 틀에서 벗어나 도서 주민, 방문객, 전문가, 기업 등 참여 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식 모색을 통하여 참여형 문화경관 창출 유도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 지역의 경관개선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 지자체 상호협업을 통한 경관협정을 제시하였다. 아름다운 섬을 위한 건축물 외부공간과 식재유지관리, 살고 싶은 섬을 위한 노후건축물의 외장 및 가로경관, 찾고 싶은 섬을 위한 건축물 입면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 필요대상과 우선 추진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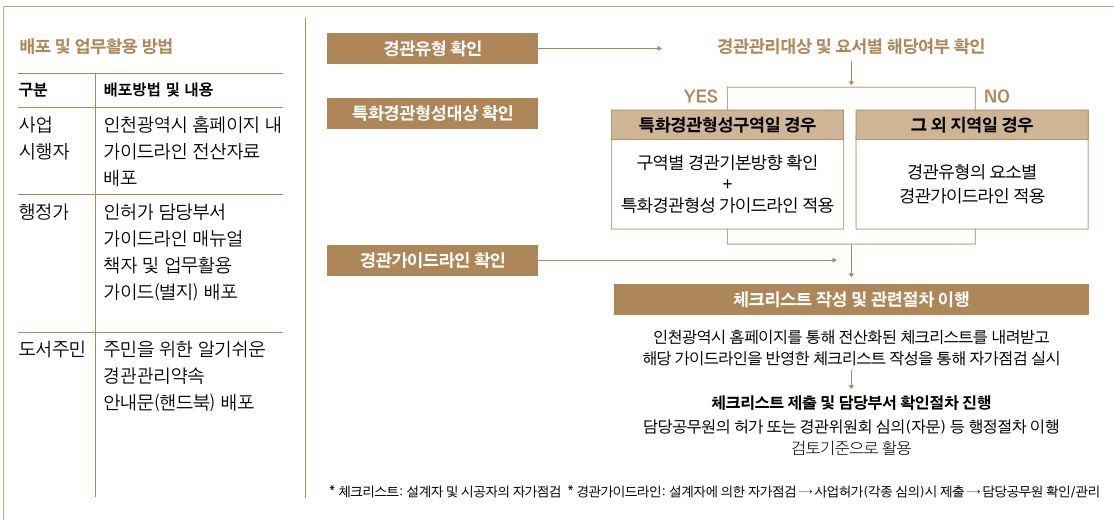
경관협정 운영 및 주민참여 유도 방안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일급 번째로 도서지역의 일관된 경관관리를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검토 및 협의 과정 내 경관가이드라인 확인과 이행절차를 강화하고, 성장관리방안, 지구단위계획, 군·구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도서지역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여덟 번째로 각종 인허가 절차 내 주요 도서지역의 경관 영향 유발행위에 대해 경관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부서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경관관리를 강화하였다.

도서지역 경관관리 매뉴얼 제공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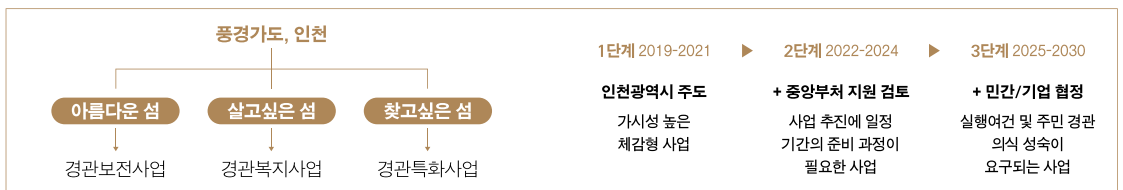
7. 도서지역 경관 형성 시범사업 추진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정과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도서지역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의 경관 미래상과 경관 목표의 실현을 위한 경관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천시는 경관 사업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일 대상지의 국한적 경관보전, 관리, 형성의 목적이 아닌 각 도서 내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연속적인 세부사업을 계획하였다.

도서지역의 경관 미래상 및 경관 목표의 실현은 단기적인 일회성 계획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파급성 및 시행절차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경관 사업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 수준으로 작성하여 사업이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도출된 경관사업안은 우선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과 장기적인 계획·관리·시행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계획하였다.

경관 미래상 및 단계별 연계사업 시행 방안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연차별 도서지역 주제별 경관사업 추진 계획안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향후계획					
총 26개 단위사업					
총 사업비 : 24,789백만원					
단기 사업비 : 6,072백만원					
중기 사업비 : 7,931백만원					
장기 사업비 : 10,786백만원					
아름다운 섬 경관보전사업					
01. 돌곶도 돌곶로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	394	●			
02. 신도·시도·모도 해안누리길 해담화 풍경가로 정비 사업	1,065				●
03. 덕적도-소아도 연도교 자연복원 및 랜드마크디자인 사업	674	●			
04. 덕적도 시모리 소나무보호지역 보전 및 조망 특화 사업	2,475				●
05. 선재도-죽도, 선재로 96번길 자연 훼손지 복원 사업	509		●		
06. 자월도 자월서로-자월동로 풍경가로 조성 사업	181			●	
총 6개 단위사업	5,298	1,068	690	3,540	
살고싶은 섬 경관복지사업					
07. 새이도 마을경관형성 사업	479	●			
08. 아차도 마을경관형성 사업	1,255				●
09. 주문도 마을경관형성 사업	1,336		●		
10. 덕적도 쓰레기 적치 및 수거시설물 사형 설치 사업	152	●			
11. 장평도 쓰레기 적치 및 수거시설물 사형 설치 사업	134		●		
12. 신도 쓰레기 적치 및 수거시설물 사형 설치 사업	91				●
13. 자월도 자월동로-자월서로 풍경가로 조성 사업	1,500	●			
14. 선미마을 자월서로-자월동로 풍경가로 조성 사업	250	●			
총 8개 단위사업	7,336	2,196	3,090	2,060	
찾고싶은 섬 경관특화사업					
15. 백령도 왕기도 선착장 주변 상정경관 특화 사업	315				●
16. 대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아색해안 풍경 형성 사업	776	●			
17.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780	●			
18. 용유도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1,000	●			
19. 거창도 아간경관 물리 사업	67	●			
20. 월왕리해수욕장 송림연계 친수공간 조성사업	163		●		
21. 선내비해수욕장 경관정화 사업	2,528		●		
22. 용유도해변 낙조풍경 조망명소화 사업	3,080		●		
23. 월왕리해수욕장 옥외광고를 및 친수보행로 특화사업	1,656				●
24. 용유도해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787				●
25. 마시안해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2,814				●
26. 강화도 해양관광유적 13개소 진흥으로 특화 사업	328				●
총 12개 단위사업	14,294	2,623	5,771	5,900	
전체 사업	24,789	6,072	7,931	10,786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동검도 전경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는 도서지역 경관관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각종 문제점 해결과 주민참여 및 제안사업 실현을 위해 2017년부터 15개의 단일 경관 사업을 차례대로 시행하였다. 10,396백만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강화군, 옹진군, 중구 등 도서지역에서 주거환경, 선착장, 해수욕장, 공공시설물, 수목, 건축물 색채, 야간경관조명 등 지역인프라 구축 및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도서지역 경관특화사업을 시행하였다. 시범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제안 도서경관 형성사업 연차별 추진

위치 중구, 강화군, 옹진군 내 도서지역

사업기간 2017년~2021년

사업내용

- 주거지역, 선착장, 해수욕장 등 도서지역 경관개선
- 조망공간, 휴게시설물, 안내사인 등 설치 및 정비
- 수목식재, 건축물 색채개선,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사업비

15개 사업, 10,396백만 원(시비 50%, 군·구비 50%)

연도	군구	사업명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사업내용	비고
2017년	강화군	01 불음도 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406 (시비 203, 군비 203)	·선착장 환경 및 안내시설물 정비 ·주거지 펜스정비, 휴게시설물 조성	완료 (18.7)
	강화군	02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1,000 (시비 1,000)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비약정비 등) ·경관시설물 설치(쉼터, 안내판 등)	완료 (19.2)
	옹진군	03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	1,550 (시비 775, 군비 775)	·선착장 및 상업시설 경관개선 ·지붕도색 및 해변보행로 개선	완료 (19.2)
2018년	옹진군	04 자월도 자월항 경관개선사업	1,500 (시비 750, 군비 750)	·선착장 주변 경관개선 ·해안도로 주변 경관개선	완료 (19.12)
2019년	중구	05 용유도 해안풍경 조망공간 조성사업	1,000 (시비 500, 군비 500)	·경관조망대 조성 ·진입로 조성, 야간경관조명 설치	완료 (19.10)
	옹진군	06 영흥면 내6리 경관개선사업	2,000 (시비 1,000, 군비 1,000)	·해수욕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공원, 보행환경, 야간조명 개선	완료 (21.3)
	중구	07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780 (시비 390, 군비 390)	·친수보행로 조성, 진입광장 설치 ·휴게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	추진중 (21.11)
2020년	중구	08 소주의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80 (시비 40, 군비 40)	·마을 지붕색채 개선 ·노후 지붕 교체	완료 (20.10)
	강화군	09 이현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90 (시비 45, 군비 45)	·마을 지붕색채 개선 ·노후 지붕 교체	완료 (20.12)
	옹진군	10 북1,2리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80 (시비 40, 군비 40)	·마을 지붕색채 개선 ·노후 지붕 교체	완료 (20.9)
2021년	중구	11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2단계	880 (시비 440, 군비 440)	·친수보행로 조성, 진입광장 설치 ·휴게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	추진중 (21.11)
		12 교통도 경관 마스트플랜	150 (시비 75, 군비 75)	·경관종합계획, 시범사업 발굴 ·경관협정, 공모사업 추진	추진중 (21.12)
	강화군	13 북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 개선사업	700 (시비 350, 군비 350)	·해안테크로드, 경관조명 설치 ·진입로 조성, 공공시설물 설치	추진중 (21.12)
		14 이현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2단계	80 (시비 40, 군비 40)	·마을 지붕색채 개선 ·노후 지붕 교체	추진중 (21.5)
	옹진군	15 북1,2리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2단계	100 (시비 50, 군비 50)	·마을 지붕색채 개선 ·노후 지붕 교체	추진중 (21.6)

대상지별 도서지역 경관 형성 시범사업 현황

2017년 선착장·사업시설 등 주변지역의 가로환경 및 마을환경 개선(시행 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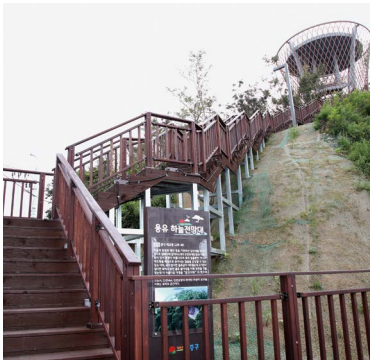
덕적도 전리항 경관개선사업

2018년 주민참여 편의시설을 확충 및 기반시설과 연계한 선착장 경관 개선(시행 전, 후)



자열도 자열항 경관개선사업

2019년 용유8경으로 공항, 일몰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인천 대표 전망대 설치(진입로, 주간, 야간)



용유도 해안동경 조망공간 조성사업

2020년 낙후된 도서지역에 인천 환경색을 활용한 통합적인 색채경관 형성(시행 전, 후)



이현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2021년 해안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한 경관 관리(시행 전, 후)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8. 도서지역 경관계획의 의미와 가치

최근 온라인을 통해 지역의 숨어있는 여행명소가 알려지면서 매력을 찾는 여행, 여유로운 관광을 위한 여행 등 힐링 여행지에 대한 정보공유와 확산으로 독특한 환경을 지닌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의 168개의 섬은 국내 대표 해양도시로서 특색 있는 고유의 도서경관과 우수한 수변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도서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 인프라시설 부족, 통합정보의 부재, 한정된 사업 등으로 지역발전이 어려웠으며,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건축물, 역사문화공간, 자연환경, 해안 등 도서경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간 도서만의 경관과 고유의 것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수단이 부재하였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경관 사업으로 도서 경관자원이 훼손되고 방치되어, 섬별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계획이 필요하였다. 「경관법」에 따라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계획으로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도서지역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및 세부내용이 부족하여 도서별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 확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인천시는 군·구 및 관련 기관의 경관업무 전담부서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도서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도서지역 경관관리에 대한 정책과 제도, 경관관리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그동안의 경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과정을 시작하였다.

우수한 도서경관을 보전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인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고려하는 조망권 확보와 원지형의 보존 및 훼손을 최소화하며, 도서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형태 및 재료를 적용하고, 섬의 기후와 계절을 반영하는 디자인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도서지역의 지역경쟁력 증대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관광 수요를 늘려 주민소득을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도서지역의 균형 있는 경관 형성 지원으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경관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풍경이 아름다운 섬 인천”을 위한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 만들기를 통해 명품 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시지역 경관관리 우수사례 도출과정 및 주요 내용

1



전국 최초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

- 전국 최초 계획 수립 전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 영역(2017년) 추진 후 도시경관[관리]계획(2019년)수립
- 단계별 선진행정을 통해 타 기관의 모범적 역할 수행 및 우수사례 도출

2



도시경관 DB를 활용한
인천섬 대 시민

GIS 서비스 대행

- 도시 DB의 효과적 정보 공유 및 타 부서 협업 (스마트도시담당관, 도서지원과)

3



공공주도 경관사업에서 벗어나

참여형 문화경관 창출

- 주민(사업제안), 방문객(캠페인), 예술가(재능기부), 기업(지원) 등 참여 지원

4



주민 참여 및 제안 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통한

주민 참여 극대화

- 15개 사업 추진 완료 (17년~21년, 10,396백만 원)
- 중장기 사업(22년~30년) 추진 예정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참고문헌

인천광역시. (2018).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변천기록 아카이브.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도시지역 경관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도시지역 경관(관리)계획 보고서.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인천광역시. (2021). '풍경가도' 168의 가치를 찾다.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imap.incheon.go.kr/archive/main.do>(검색일: 2022.9.19.)

GOOD
PRACTICE 3

경관사업 우수사례 1

서울

서울의 경관과 역사를 기록하다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사업부문 장관상



2021
아시아도시경관상

이진표 주무관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대상지 위치
서울특별시 전역

대상지 면적
605,2㎢

사업기간
1995년 1차 경관기록화사업 ~
2020년 6차 경관기록화사업(총 25년)

참여 주체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주명덕 작가, 이명수 작가, 채수옥 작가

서울은 그 형태를 기록할만한 도시이다. 서울은 백제의 수도부터 시작한 역사도시이지만,
현대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 탈바꿈한 현대도시이다.
이러한 풍부한 역사의 단층이 극적으로 공존하는 우리 서울의 특징적인 시대상을 발굴하고자
'95년부터 5년마다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을 진행해왔다.

서울의 경관과 역사를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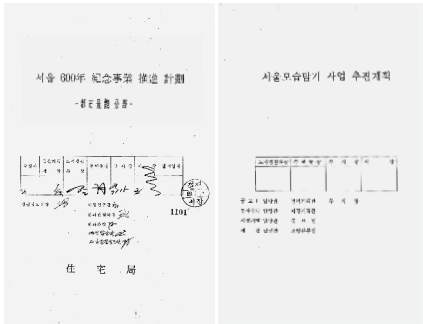
1.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시작과 추진과정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그 형태를 기록할만한 도시이다. 서울은 2,000여 년 전 백제의 수도로 시작한 역사도시이지만, 20세기 후반의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성장을 통해 탈바꿈한 현대도시이기도하다. 그래서 풍부한 역사의 단층이 서울처럼 극적으로 공존하는 도시도 많지 않으며, 서울만큼 한 나라의 사회변동과 경제발전, 그리고 문화양태를 그 도시현실 속에 압축시켜 나타내고 있는 도시도 드물다.

이처럼 과도한 성장지향 시기를 거쳐 오며 천혜의 자연조건과 인위적인 도시개발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등 좋은 경관과 그렇지 않은 경관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서울의 도시경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자화상이자, 꾸준히 아끼고 가꾸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2019)
출처: 서울시 제공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1992)』



1차 경관기록화사업 화보집



1차 기록화사업 결과물(광화문 일대)

출처: 서울시 제공

1.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관기록화 사업으로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의 한 기념사업 분야로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해당 내용을 수록하여 경관사업 중 하나로 의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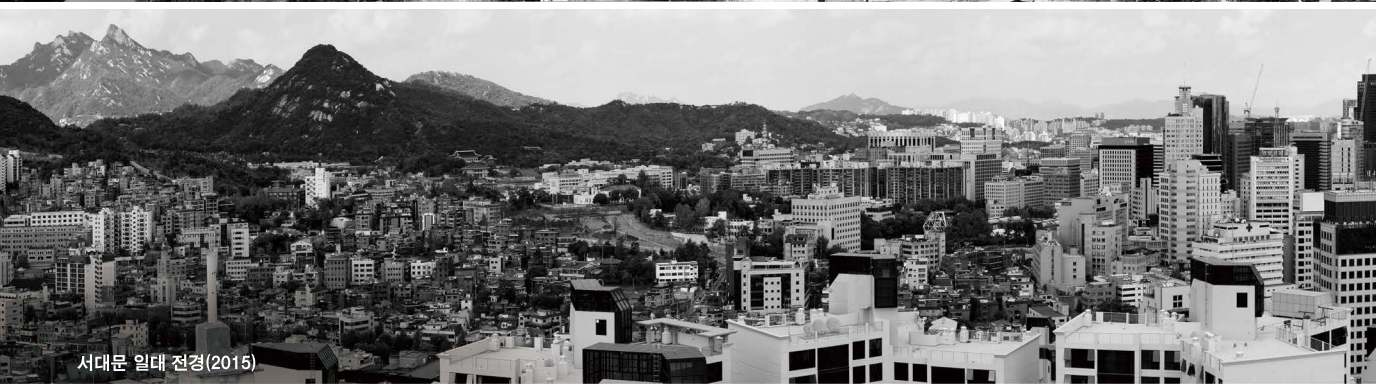
서울의 도시경관은 그것을 만들어낸 서울 시민의 가치와 열망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시대가 지날수록 그 시대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1995년 제30대 서울시장인 조순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경관기록화사업'을 시작하였다.¹





서대문 일대 전경(1920)



서대문 일대 전경(2015)



응봉산에서 바라본 한강(2019)

출처: 서울시 제공



서울 경관기록화 사업은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모습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사업이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한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약 36,000장의 사진으로 지난 25년간 서울의 변화를 기록해왔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목적은 변화하는 도시 풍경의 기록뿐 아니라 서울 특유의 개성 및 역사, 문화 정서 등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서울 도시 경관관리를 위한 기준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회를 거듭하면서 기록방식이 정교화·체계화되었고, 각 회 차별 주제와 내용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1차 기록화사업 '95~'96은 '기록'이라는 개념에 대한 촬영방법 및 촬영대상 등의 체계를 구축하였고, 2차 기록화사업 '99~'00은 전문가들의 판단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으로 기록대상을 선정'하고 기록하였다.

3차 기록화사업 '04~'05은 기록대상 선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자치구별 설문조사로 확대 실시하였고, 신문기사 및 인터넷 조사를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4차 기록화사업 '09~'10은 기존 필름으로 남긴 기록화사업 성과품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5차 기록화사업 '14~'15은 표준기록경관을 최종 선정을 하였으며, 모든 필름 사진작품을 스캔화와 코드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6차 기록화사업 '19~'20은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조사를 함께하여 경관기록대상을 다양화하였으며, 새롭게 드론을 도입한 촬영을 시도하였다.



서울의 밤(서울역 일대)

출처: 서울시 제공

1차(1994/1996)

**과업주제**

- 서울 이미지 구체적 형상화

과업주요내용

- 경관기록 및 체계 성립
- 기록대상 선정방법 구체화

2차(1999/2000)

**과업주제**

- 경관 기록방법 다양한 및 체계화

과업주요내용

- 항공촬영 및 야간 촬영 기록
- 설문조사 도입(일반인 98인)

3차(2004/2005)

**과업주제**

- 다양한 서울모습 기록 및 보존

과업주요내용

- 각 자치구 별 설문조사
- 신문기자 및 인터넷 조사

4차(2009/2010)

**과업주제**

- 경관 관리 및 자료 홍보·활용

과업주요내용

- 지속적 기록 대상 선정
- 사진 검색 DVD 제작

5차(201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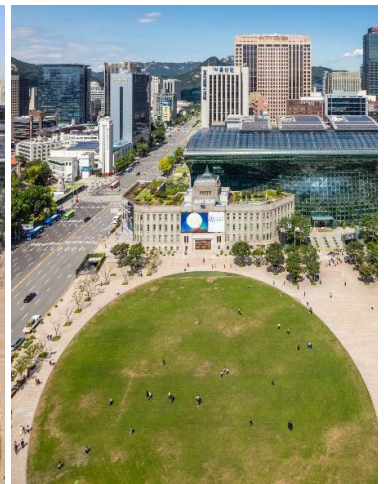
**과업주제**

- 대표 시대상 발굴 및 역사적 의미 형상화

과업주요내용

- 표준 경관 선정
- 1-5차 사진코드 통일화

6차(2019/2020)

**과업주제**

- 경관기록대상 다양화 및 경관기록방법 체계화

과업주요내용

- 드론촬영 도입
- 빅데이터 기반 대상지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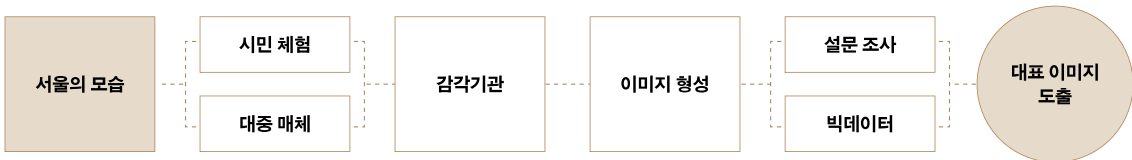
2. 서울경관기록의 대상과 정의

도시이미지는 시민들이 도시 공간 속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기억이 마음에 남아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형성되는 심상(心象)이다. 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의 구조(structure)와 의미(meaning)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이러한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장소를 찾고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1~4차 서울 경관기록화사업 제작 책임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기호 교수는 기록에 대한 체계의 틀을 잡으면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모습부터 대표 이미지, 장소성을 도출하여 경관기록 대상을 선정하였다.

시민들이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도시를 이해하는데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에서는 텔레비전, 책, 인터넷,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인터넷 및 SNS 키워드를 통한 TEXTOM 기법 사용)을 통해 서울에서 주요한 장소를 선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서울의 대표 이미지는 다시 표준 기록경관과 경관기록대상으로 도시 경관을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서울의 도시이미지 도출 다이어그램



서울시 도시이미지 주요 분석 사항

구분	대상의 범위	필요 분석 작업
도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전체적 경관 - 서울의 골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요소와 시가지의 관계 - 서울의 대표적 지역에 대한 종합적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주요자연요소 - 시가지 구조와 조망시점
경관의 변화양상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년간 만들어진 주요 시설물 및 건조물, 개발사업 등을 조사 -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경관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있는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5차 사업 사진 분석 - 변화양상 및 변화요인의 분석
현재의 서울 이미지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특징적 건축물 등 새로운 이미지 요소 - 계절별, 주간/야간, 지상/지하 등 여러 시점에서 이미지 요소가 될 수 있는 서울의 풍경 - 현 시대를 반영하는 시민들의 삶의 모습 - 시민들의 주요 활동이 일어나는 거리,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 이미지 요소 추출 - 주요 사회문제와 이의 사회적 표출방식 조사 - 가로와 특정지구 등과 연관된 연구 분석
변화예상 대상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어 도시경관 차원에서 기록이 필요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시개발 계획 등 분석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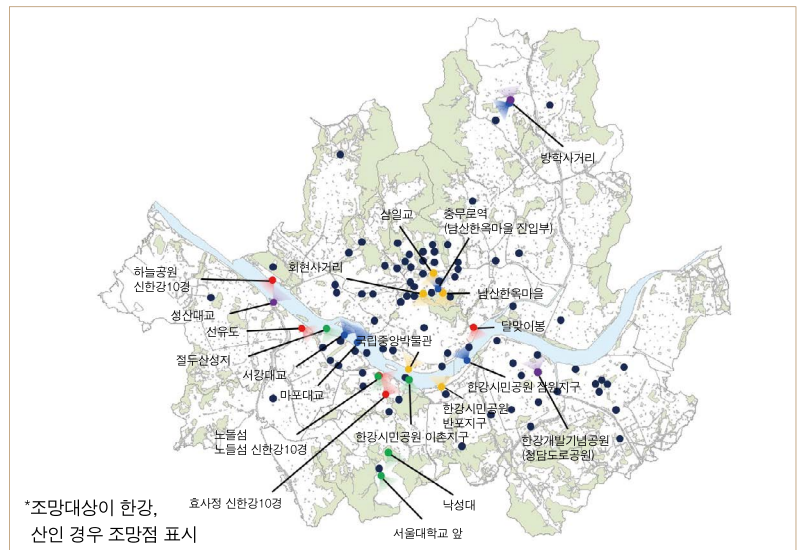
표준기록경관

표준기록경관의 개념은 도시형태 및 시민의 다양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장소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 경관이며, 지속되고 변화하는 경관의 모습을 시계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관이다.

이러한 표준기록경관을 선정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대표 장소들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선정된 표준기록경관의 대상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수법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준경관 기록지점 및 대상은 일반지점 120곳, 드론지점 100곳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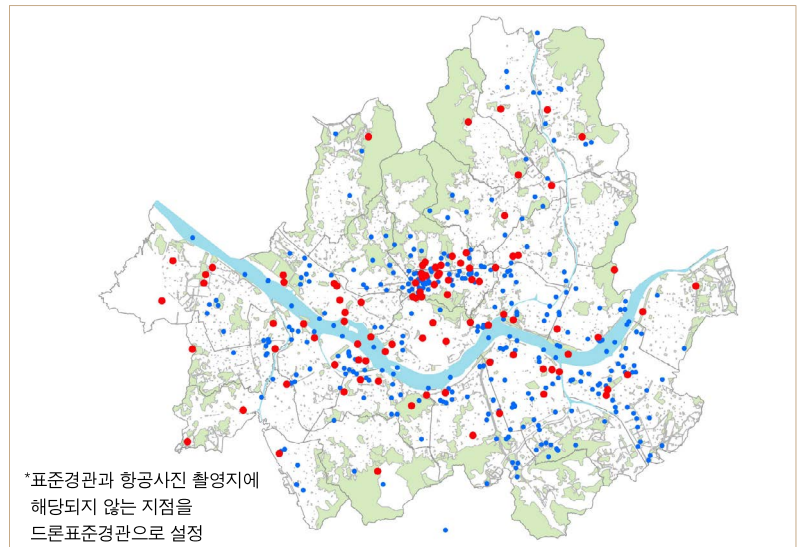
표준기록경관

- 조망대상
- 한강
- 남산
- 관악산
- 도봉산
- 북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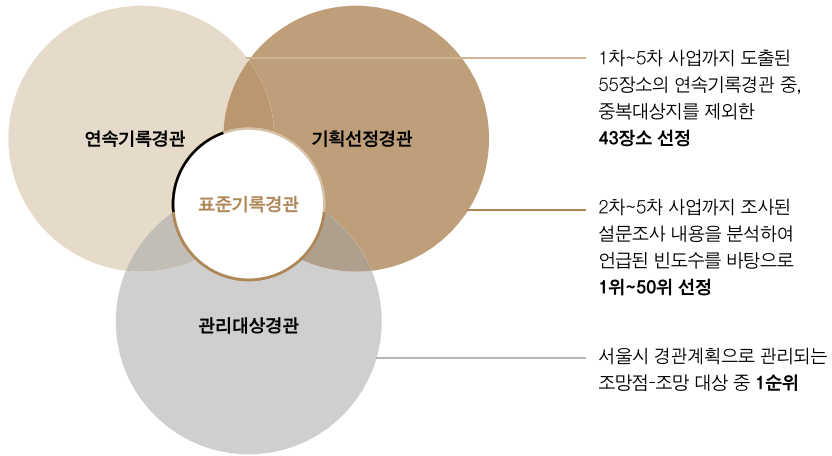


드론표준관

- 드론 표준경관
- 표준경관
- 항공사진 촬영지



표준기록경관 다이어그램



2.2

경관기록대상

서울의 대표 이미지로 구성된 표준기록경관을 제외한 경관기록대상은 다시 각각의 유형에 맞춰 분류하였다. 기록대상은 아래 경관기록대상 접근의 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로축으로 불변성 도시 구조적 사항과 가변성상관 등을 세로축으로는 주관성 전문가 및 설문조사, 객관성 자연환경 등 지표로 설정하여 도시구조, 도시이미지, 도시역사, 도시생활, 도시진화, 도시상생의 6개 경관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범주 내에서 현재 총 1,226곳을 선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경관기록대상 접근의 틀

도시구조경관	도시이미지경관	도시역사경관	표준기록경관	도시상생경관	도시생활경관	도시진화경관
불변성						가변성
도시를 형성하는 물리적 골격으로 자연적·인공적인 구조	도시인지환경				시민의 모습을 통해 시대상을 발견, 시대적 유대감이 느껴지는 모습	도시 공적 변화 형상 계획 및 정책, 자본개발에 따른 변화
	시민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등	집단 공간을 불러일으키는 자산도시의 역사에 대한 태도	지속 + 문헌 + 지역	변화에 따른 공간의 전환 양상	생활 활동 환경	
		보전역사환경		점아·상생환경		
물리구조환경						계획 변화환경
→ 자연·인공 구조 → 주요 조망 구조	→ 총체적 이미지 → 통합적 이미지	→ 역사적 건축·시설 → 보존·보전·방치	→ 시계열적 연속성 → 지속적 대표성	→ 문화 융합 공간 → 복합적 공간 활용	→ 일상과 비일상 → 현재의 시대상	→ 도시 계획 및 개발 → 공적·사적 공간

3.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내용 구성

서울 경관기록화 사업은 크게 두 개의 성과품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록대상 연구에 의해 도출된 사진 회차별 5천여 장이며, 다른 하나는 회차별 주제에 맞게 구성한 경관 기록화 사업 화보집이다.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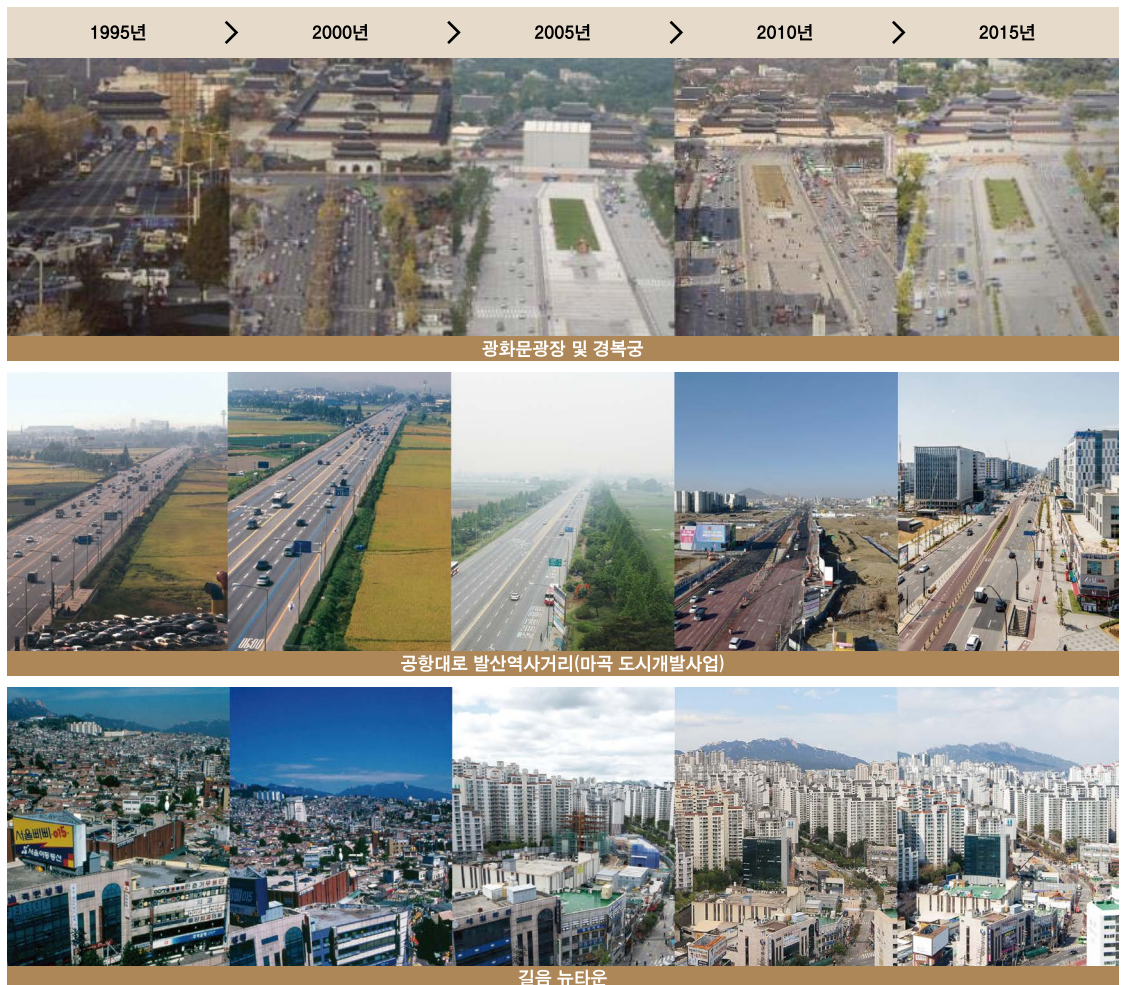
기록화 사업 사진작품

2. 서울 경관 아카이브(<https://urban.seoul.go.kr/cityscape>)

서울 경관기록화 사업은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표준기록경관과 경관기록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진을 촬영하였고, 구체적인 사진은 '서울 경관 아카이브'에서 검색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²

표준기록경관의 대표적인 예로 세종대로에서 광화문광장으로의 변화과정, 공항대로 발산역사거리 일대의 변화과정, 길음 뉴타운의 변화과정을 들 수 있다.

표준기록경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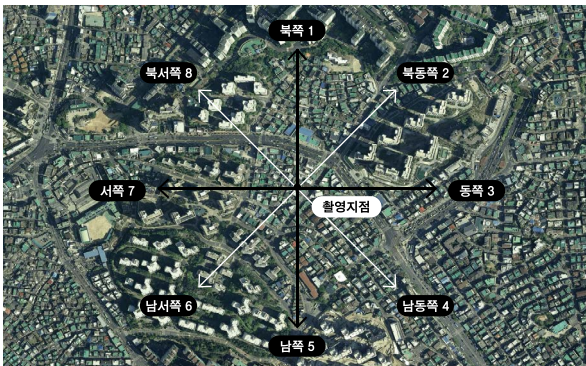
광화문광장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세종대로에서 광장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광화문의 보수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공항대로 발산역사거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전벽해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길음 뉴타운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뉴타운으로 조성되는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 등 정책에 따른 도시 구조의 변화와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소소한 일상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또한 경관기록대상에 따라 서울 도시구조에 대한 사항과 생활경관을 기록하고 있다.

총 36,00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경관 기록 사진 작품은 경관정보를 담은 구체적인 코드를 각 사진별로 부여하여 기록화사업 회차, 사진 촬영 위치, 방향, 주제, 수단 등의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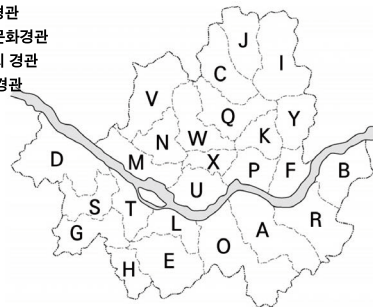
경관기록화사업으로 도출된 사진작품의 개별 코드화



경관정보



- A 자연녹지경관
- B 수변경관
- C 역사문화경관
- D 시가지 경관
- E 야간 경관



예시

파일명_1	파일명	회차	구	대상지	세부대상지	주제	방향	수단	표준경관	코드번호	
[동작구]											
9236	IMGL9236	06	L	001 01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이편한세상, 상도로,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Da	8	0	000	06L00101Da80000
9237	IMGL9237	06	L	001 02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이편한세상, 상도로,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107동), 상도역교차로	Da	8	0	000	06L00102Da80000
9254	IMGL9254	06	L	001 03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역, 상도역교차로, 상도대우유로카운티아파트	Da	2	0	000	06L00103Da20000
9260	IMGL9260	06	L	001 04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역, 상도역교차로, 상도대우유로카운티아파트	Da	2	0	000	06L00104Da20000
9270	IMGL9270	06	L	001 05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이편한세상, 상도로, 상도동성당	Da	1	0	000	06L00105Da10000
9277	IMGL9277	06	L	001 06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이편한세상, 상동아리파크, 건영아파트	Da	2	0	000	06L00106Da20000
9280	IMGL9280	06	L	001 07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이편한세상, 상도로, 건영아파트	Da	3	0	000	06L00107Da30000
9286	IMGL9286	06	L	001 08	상도이편한세상	상도이편한세상, 만안로, 만안로2길	Da	4	0	000	06L00108Da40000
8867	IMGL8867	06	L	002 01	고구돌산	노량진근린공원, 망년로, 서울분당초등학교, 경동원트리비아아파트	Ac	5	0	000	06L00201Ac50000
8889	IMGL8889	06	L	002 02	고구돌산	노량진근린공원, 동양중학교, 경동원트리비아아파트	Ac	7	0	000	06L00202Ac70000
8978	IMGL8978	06	L	002 03	고구돌산	노량진근린공원	Ac	1	0	000	06L00203Ac10000

3.2

화보집

각 회차별 서울 경관기록화 사업의 또 다른 최종 결과물은 화보집이다. 화보집은 각 회차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목차를 구성하고 있다. 2020년에 진행한 6차 기록화사업부터는 세 개의 주제³를 선정하였다. 향후 이들 세 가지 주제로 지속적으로 기록을 이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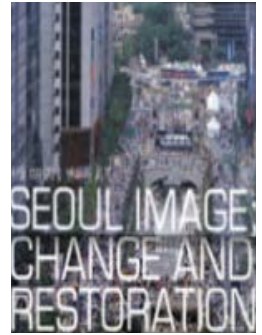
3. 주제1. 도시풍경(도시구조 경관),
주제2. 시민의 삶(생활 경관),
주제3. 기록에 담긴 변화(표준
기록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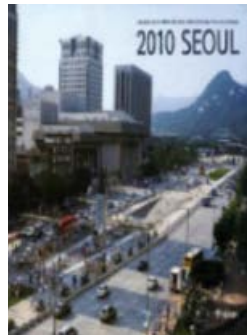
1차(1995~1996)
도시경관의 기록



2차(1999~2000)
서울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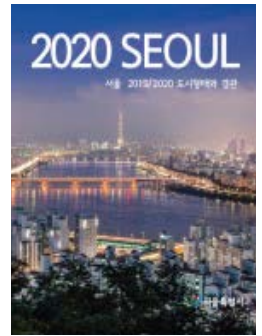
3차(2004~2005)
변화와 회복



4차(2009~2010)
디자인, 변화, 풍경



5차(2014~2015)
소통과 어울림



6차(2019~2020)
소통과 어울림

출처: 서울시 제공

4. 서울경관 사진기록의 기본방향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글이 아닌 시각매체인 사진을 통한 서울 모습의 '기록'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화려한 촬영기법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촬영하고자 하였다.

사진 기록물 촬영 기본방향은 첫 번째로 도시적·기록적 맥락을 유지하는데 있다. 기록 대상인 단일 개체와 함께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 속에서의 복합적 관계를 포착하도록 하며, 변화 양상을 기록 시 이전 기록대상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장면으로 촬영하였다.

두 번째로 다양한 장면을 구성해야 한다. 촬영지점, 대상,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는 장소의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기록해야 한다. 촬영구도나 시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자연경관이나 날씨, 시간 등에 따른 다채롭고 풍부한 색깔을 포착하였다.

세 번째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생동감 있는 서울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자연, 건물, 장소 등을 시민들의 활동이 함께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현재 모습이 잘 표현되도록 시민의 공간이용, 여가 등 다양한 시대적 생활상을 포착하되 이미지 위주의 구성은 지양하도록 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촬영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도시 전체적 경관 파악 및 공간적 연속경관 기록이 필요한 경우 항공촬영, 드론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 다양한 포착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경관기록화사업으로 도출된 사진작품의 개별 코드화

거시적 경관	미시적 경관
규모: 특정 지점이 명시되지 않은 면적 10만㎡ 이상	규모: 면적 10만㎡ 이하
형태: 면적, 선적 도시구조	형태: 점적
내용: 서울의 골격을 이루는 도시구조 경관(자연과 인공구조)	내용: 도시구조경관 외 도시생활, 도시진화, 도시역사, 도시이미지 등
촬영기법: 중경(드론) / 고도 : 300m 이하	촬영기법: 중경(드론) / 고도 : 300m 이하 일반 촬영
대상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계획 및 재생(재개발 혹은 도시재생 구역), 도시 및 경관계획 관련 대상지 추출 → 변화를 보이는 대상지 위주로 선정 주요 산, 구릉지, 공원녹지, 조망명소, 한강, 지천, 역사지구, 성곽, 주거지, 업무지 	대상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문헌조사 대상지 추출 역사건조물, 주요고궁, 근현대건축물, 상업가로, 시장, 가로 및 특성가로



서울숲 및 구 삼표레미콘 부지 일원(2019)



노들섬(2019)

출처: 서울시 제공

촬영방법은 거리별 촬영근경, 원경, 중경, 계절별 촬영사계절 촬영, 시간별 촬영주경, 야경, 항공 촬영 도시형태, 드론 촬영 조감적 경관으로 구분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각 촬영 방법은 대상지별 장소적 특징과 지역성이 나타날 수 있는 도시경관의 모습과 대상 자원과 주변 도시구조와의 관계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거시적 경관과 미시적 경관으로 나누어 촬영을 진행하였다.

5.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결과물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사업 취지 및 기간, 방대한 기록사진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변화의 기록'에 초점을 맞춘 아카이브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포털에서 직접적 접근 및 검색·다운로드가 어려운 문제, 각 회차별 주요 사진을 집대성한 기록화사업 화보집이 비매품으로 출시되어 일반시민이 볼 수가 없는 등 25여 년 동안 한정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공유의 한계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힐링과 희망을 전하고, 한정적으로 제공되어온 경관기록화사업 사진작품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서울 경관 아카이브 플랫폼'을 론칭하여 변화하는 서울 도시경관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서울 경관 아카이브'는 아래 3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시 업데이트 기획 및 시민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 서울 어제, 오늘 그리고...: 경관기록화사업에서 제시한 서울의 대표 표준기록경관 80여 곳에 대해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서울 대표경관지역의 변화를 전시 기획하였다.

[기록] 서울경관기록 아카이브: 1995년부터 25년간 축적된 36,000여장에 대해 화보집과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장소별, 특징별로 시민들이 선별하여 감상 및 다운로드를 통해 교육, 연구 등에 사용 가능하다.

[공모전, 서울 경관소식] 경관이야기: 인지도가 낮지만 서울의 속살이 담겨 있는 경관 대상지를 발굴하며, 해당 범주 내에서 시민투표가 가능한 공모전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의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을 담은 '서울 경관 아카이브'는 포털 검색창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⁴ 누구나 기록물을 관망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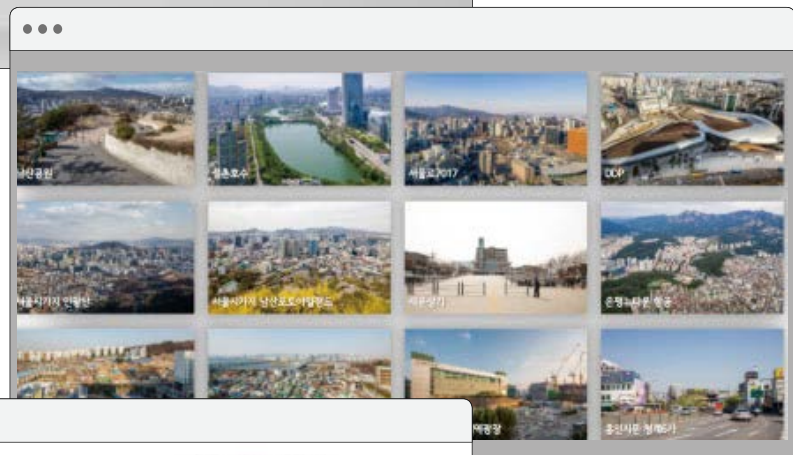
4.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cityscape>, 검색일: 2021.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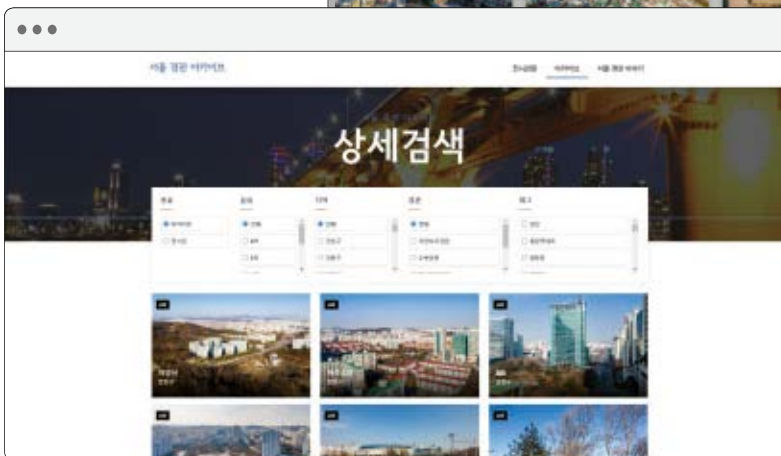
메인페이지



경관기록화사업 사진을 활용한 전시관



주요 장소에서의 경관변화 전시구현말-



36,000여장 상세 검색기능

출처: 서울 경관 아카이브(<https://urban.seoul.go.kr/cityscape>, (검색일: 2021.12.6.))

6.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가치와 앞으로의 목표

6.1

기록적 측면

비법정 계획으로 시작한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2014년부터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으로 법제화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기록화사업 시행 근거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 ② 제1항제2호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보관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경관 조례에서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사업 이외에도 급속하게 바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1~2년 단위의 소규모 경관기록화 사업용역을 발주하여, 5년 단위 경관기록화 사업의 공백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6.2

전시적 측면

서울시는 경관기록화사업을 통한 기록 결과물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모색 중에 있다. 202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 경관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 이외에도 다음-카카오 갤러리 전시회, 구글과의 협약을 통한 전시회 등을 기획 중에 있다.

다음-카카오 갤러리(우리의 일상, 서울의 봄 풍경, 2021년 4월, 255,549명 관람)



출처: 서울시 제공

6.3

활용적 측면

“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던컨, James Duncan” 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장소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시민의 삶이 담긴 장소·공간에 대해 경관을 해석하는 법적 최상위계획은 경관계획이다.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요소인 ‘보이는 대상’, ‘좋은 경관’의 기준이나 경중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같이 장소의 의미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서울시는 경관계획 재정비과정에서 지역 경관현황도 내 조망대상 및 조망점에 서울경관기록화 사업의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반영한 표준기록경관 120곳의 표준기록경관, 100곳의 드론 표준기록경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가로별 특성과 자연경관의 스카이라인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경관관리 방안의 마련과 정책 입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서울이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경관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6.4

서울시의 역할

한 시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 사명이며, 후세에 대한 책무이다. 서울의 어느 곳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지나온 시간만큼 사진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서울 경관기록화 사업을 바탕으로 만든 서울경관 아카이브 론칭 이후 일반 시민들의 전화를 거의 매일 받고 있다. 본인이 어렸을 적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 요청부터 원본 다운로드에 대한 문의, 다양한 장소에서 어느 곳을 바라보고 꼭 촬영해 달라는 요청 등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여러 시민의 의견들은 향후 7차 서울경관기록화사업에서 귀중한 재료가 될 것이다.

또한 단순 기록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관기록화사업 VR 버전, 메타버스 공간구축, 서울시 전역 3D 실사 구현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이 가야할 길은 무궁무진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시경관 역사를 기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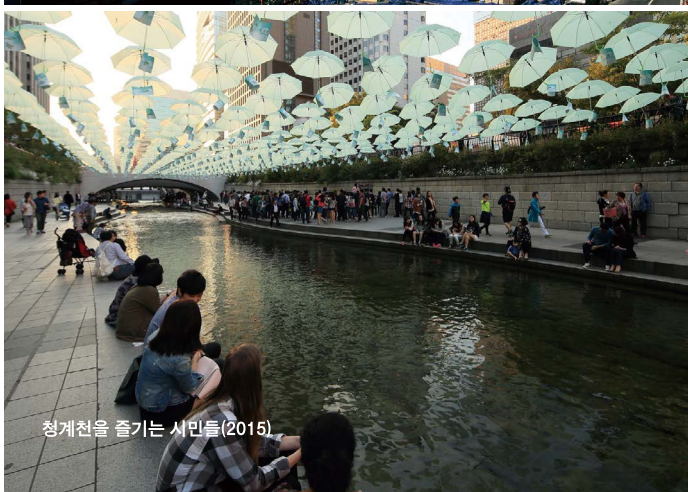


이문동 일원(2019)

출처: 서울시 제공

참고문헌

- 서울시. (1996). 1차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서울시. (2000). 2차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서울시. (2005). 3차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서울시. (2010). 4차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서울시. (2015). 5차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서울시. (2020). 6차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서울경관기록”을 위한 기획연구보고서,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도시계획포털, 서울 경관 아카이브, <https://urban.seoul.go.kr/cityscape>, (검색일: 2021.12.6.)





난지도 (1999)



난지한강공원 (2005)



난지한강공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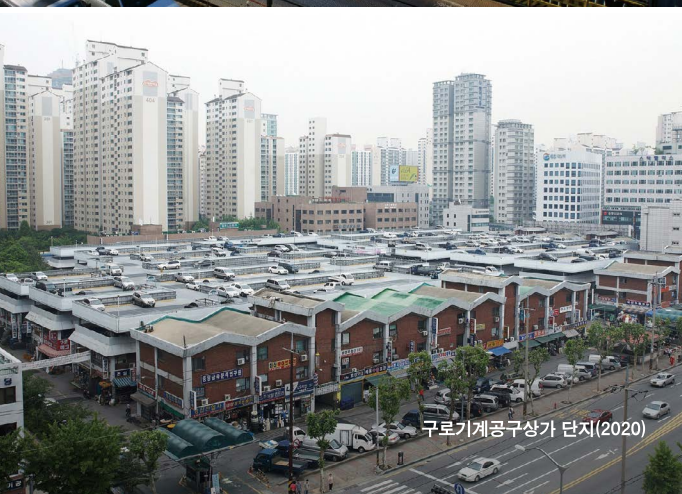
월드컵공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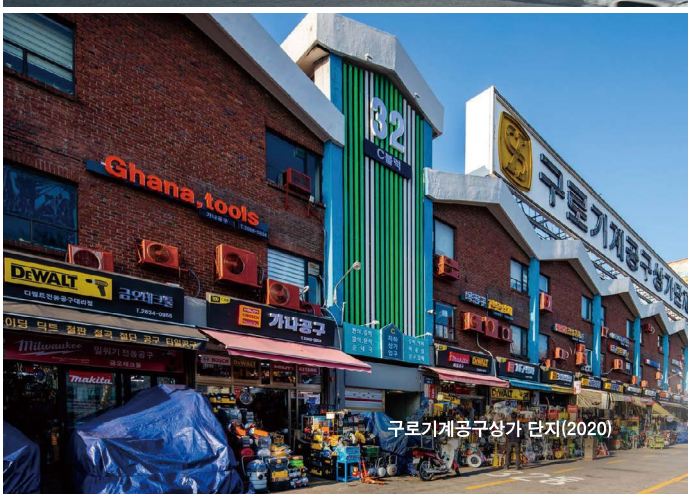
구로기계공구상가 단지 (1995)



구로기계공구상가 단지 (2000)



구로기계공구상가 단지 (2020)




구로기계공구상가 단지 (2020)

GOOD
PRACTICE 4

경관사업 우수사례 2

서울 양천구

공원 리노베이션의 새로운 기준, 양천공원

 2021
아시아도시경관상

은수진 과장
서울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대상지 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20 양천공원

대상지 면적

33,978㎡

사업기간

2017.1~2020.12

참여 주체

[양천구]

·공원녹지과장: 변규열, 김규중, 온수진

·공원팀장: 이형우, 김종유

·담당자: 김고운, 한아름, 강임석

[설계, 감리]

·㈜디오스조경디자인사무소 대표 이기열
(2017, 베이비존 설계)

·동인조경마당 대표 황용득
(2018, 꿈마루놀이터 설계·감리)

·노드아키텍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최광호
(2018, 키지트 설계·감리)

·동인조경마당 대표 황용득
(2019, 양천공원 리노베이션 설계·감리)

·서로아키텍츠 대표 김정임
(2019, 양천공원 책쉼터 설계·감리)

·정연기술사사무소 대표 허석민
(2020, 유출지하수 활용 감리)

오랜 세월을 통한 기억과 흔적이 구석구석 새겨지고 켜켜이 쌓인 공원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고, 진부하고, 불편한 경우가 왕왕 있다. 우리는 익숙함을 떨치면서 낯고, 진부하고, 불편한 것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원에 스며든 기억과, 흔적을 보존할 수 있을까?

양천구는 지난 30년 세월을 지닌 양천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공원의 기능을 더하고자 2017년부터 3년간 리노베이션을 시행했다. ‘전국 최초 베이비존 조성’, ‘전국 최초 실내의 통합놀이터 조성’, ‘책쉼터 조성 및 유출지하수 활용’까지 여러 사업이 중층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양천공원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쉼과 치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공원 리노베이션의 새로운 기준, 양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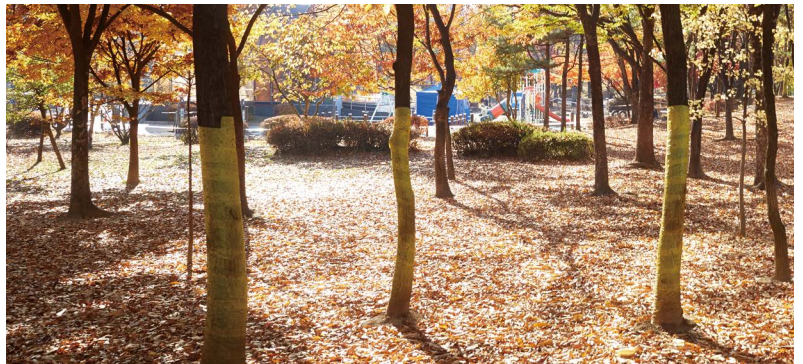
양천공원 리노베이션 후

출처: 양천구 제공

1. 베이비존(Baby Zone) 조성

양천공원 리노베이션의 처음 시작은 400㎡ 규모 작은 잔디밭이었다. 양천공원은 1988년 개장 후 1994년 야외무대 건립 외 소소한 정비는 진행되었지만,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이 추진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베이비존 Baby Zone 조성'이었다. 2017년 2월 기획해 5월 2일 개장한 베이비존은 야외무대와 놀이터 인근 나무가 등성등성했던 평탄지에 영유아를 위한 잔디밭과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베이비존 조성사업 당시 2017년 합계 출산율이 1.052였고 다음 해 마의 1점대가 무너지며, 이미 저출산 추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여성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의 관련 정책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베이비존 조성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잔디마당 400㎡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영유아 그네²개소, 모래놀이터, 평상⁵개소, 의자⁵개소, 해먹²개소 등을 설치한 뒤, 화목류와 초화류를 다양하게 심어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40일 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공사였지만, 개장 후 반응은 뜨거웠다. 베이비존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소개되었고, '아빠공원'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아스팔트 중앙광장과는 달리 부드러운 잔디밭과 유아전용의 안전한 놀이 시설이 한 몫한 결과였다. 양천공원 내 베이비존 조성사업은 1억 원이라는 작은 예산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변화치곤 꽤 큰 반향이 일었다.



베이비존 조성 전



베이비존 조성 후

출처: 양천구 제공

1.1

통합놀이터 조성

베이비존 오픈 후 4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양천공원에 있던 기존 놀이터와 연결한 야외무대를 묶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한달 전인 8월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양천장애인복지관 일대 통합놀이터 조성비' 3억7천만 원이 확정되었고, 9월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4단계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예산으로 양천공원에 3억 원이 지원된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놀이터 조성비용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인 6억7천만 원이 '통합과 창의'라는 분명한 주제하에 양천공원에 조준된 상황이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놀이터로는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노후된 야외무대의 철거 또는 활용문제가 논의되었다. 1994년 건립된 야외무대는 2005년 열린 음악회 개최 등 많은 기억이 쌓인 공간이었으나, 그 시대가 그러했듯 규모와 디자인 모두 권위적이었다. 결국 야외무대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되었고, 철거비용 문제로 재활용이 결정되었다. 배 모양의 우주선과 우주기지를 테마로 한 작품명 '스페이스 오딧세이'를 제안한 동인조경마당대표 황용득이 설계를 맡았다. 이후 야외무대 지

통합놀이터 조성 전 양천공원 모습



통합놀이터 조성 전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조성 전 어린이놀이터

출처: 양천구 제공

하창고를 실내놀이터로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덧붙여져, 야외무대는 종합놀이터로, 기존 놀이터는 모래+통합놀이터로, 지하창고는 실내놀이터로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도 총 1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최종적으로 통합놀이터는 ‘궁광궁광 꿈마루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2018년 5월 개장하였고, 지하창고는 엘리베이터공사로 인해 같은 해 10월 ‘키지트 KIGIT, KIDS+AGIT’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대표단, 육아전문가, 장애전문가, 놀이전문가가 함께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10회 이상의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6회 이상 주민과 아이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이용가능한 놀이공간을 만들었고, 넓은 모래놀이터와 365일 이용 가능한 실내놀이터까지 갖춘 양천공원 통합놀이터는 조성 이후에도 놀이활동가를 배치하거나 유아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선진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러한 결과로 2018년 「제10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한국조경학회장상을 수상하였고, 9월에는 뉴질랜드 웰링턴시 부시장이 통합놀이터 방문, ‘Urban Playgrounds in Asia’ 촬영 등 수상과 보도가 이어졌다.

통합놀이터 조성과정



꿈마루 놀이터 디자인 초안



꿈마루 놀이터 디자인 논의 모습



꿈마루 놀이터 디자인 논의 모습

출처: 양천구 제공

통합놀이터 조성 후 양천공원 모습



방치되던 지하창고 공간을 실내어린이 놀이터로 조성

출처: 양천구 제공

2.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노베이션

통합놀이터가 완공된 시점에서 한 달 후인 2018년 6월 13일은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당초 베이비존과 통합놀이터를 추진했던 구청장은 공약으로 ‘목동중심축 5대공원 리노베이션’을 내걸었다. 양천구청장의 재선이 결정되면서 같은 해 11월 목동신시가지내 5개 공원에 대한 리노베이션 계획이 수립되었다. 초기계획은 기존 양호한 수립과 동선은 유지하면서 일부 공간들을 정비한다는 계획하에 5년간 83억 원의 예산으로 기획되었다.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민관협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민관협의체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디자인워크숍 개최 등도 함께 제안되었다.

목동중심축 5대공원 리노베이션계획(2018.11.8., 최초계획)

구분	계	양천공원	파리공원	신트리공원	목마공원	오목공원
조성년도	-	1988	1987	1988	1987	1989
면적(m ²)	114,107	33,798	29,613	16,409	12,817	21,470
소요예산(억 원)	83	20	20	12	10	21
추진년도	-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0~2021	2021~2022

중심축 5대 공원 테마형 리모델링 실시



2.1

양천공원 리노베이션

목동중심축 5대공원 리노베이션의 첫 대상지는 양천공원이었다. 양천공원의 규모는 33,798㎡로 5개 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양천구청과 연접하여 양천구 중앙공원의 성격을 띤 다목적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1988년 6월 30일 최초 준공된 양천공원은 조성된 지 30년이 막 지난 상황이었다. 2018년 11월 제안공모가 시작되었고, 2019년 1월 심사결과 양천공원 통합놀이터를 설계했던 동인조경마당대표 황용득이 '오래된 5개의 「숲」, 새로운 「봄」, 5G PARK'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안을 제출해 공원설계자로 당선되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사항은 잔디광장이었다. 기존의 아스팔트광장은 4,500㎡ 규모로 평소에는 농구장으로 이용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행사공간으로 오랜 기간 이용되어, 공원 이용객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이었다. 이러한 이유 탓에 아스팔트광장을 잔디로 채우는 데 반대의견이 많았다. 잔디광장 소재 특성상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도 높고, 훼손되었을 경우 흉물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터였다. 앞서 언급한 열린음악회 같은 큰 행사가 열린 공간이자, 광장까지 택시들이 가득 들어와 다양한 캠페인행사까지 하던 공간이라,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 하지만 여러 논의 끝에 변화에 대한 양천구의 의지가 관철되었고, 그 결과 이용행태의 큰 변화가 생겨났다.

양천공원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당선작 개요

작품명	오래된 5개의 「숲」, 새로운 「봄」, 5G PARK
기본방향	1. 양천구청과 통합적 구조로 녹색복지 실현 2. 도시재생적 공원 리노베이션 제시 3. 시대 트렌드를 담은 복합문화공간 형성
공간구성	중앙광장(Culture Circle, 잔디광장), 숲명상원(Healing Forest), 운동공간(Health Field), 숲놀이터(Play Forest), 숲속도서관(Leisure Forest)



양천공원 조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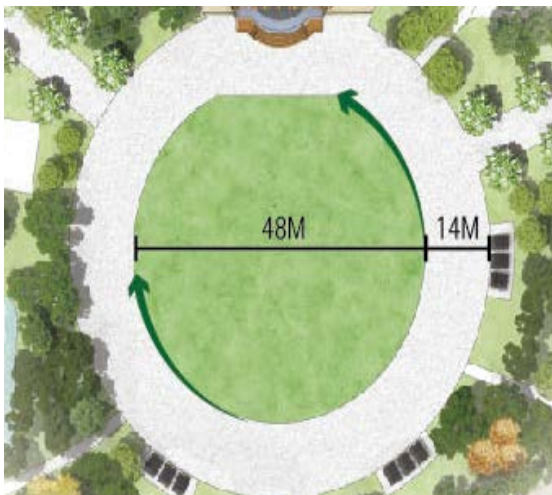
출처: 양천구 제공



양천공원 마스터플랜



출처: 양천구 제공



양천공원 조성과정 계획안 평면도



출처: 양천구 제공

2.2

유출지하수 활용

양천공원 당선작이 선정되어 기본설계가 막 시작되던 2019년 3월, 서울시 물순환국은 양천공원을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5억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천공원 인근 민간빌딩인 센트럴프라자에서 1일 400톤의 맑은 지하수가 유출되어 버려지는 상황이었고, 이 중 일부를 양천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관, 100톤 규모 저수탱크 및 생태연못과 계류 조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천공원에서는 실개천과 생태연못 급수, 잔디광장 등 녹지대 관수, 화장실 용수에 지하수를 재활용하게 되었다.



쿨링포그를 작동한 실개천 모습

출처: 동인조경마당

2.3

책심터 조성

양천공원 리노베이션 실시설계가 한창 진행중이던 2019년 8월, 앞 선 지하수 활용 사업에 이어 또 다른 변화요인이 나타났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공원내 책심터 조성사업’ 시범대상지 2개소 중 하나로 양천공원이 선정된 것이다. 양천구는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김정임소장서로아키텍츠를 건축설계자로 선정해 양천공원 책심터 조성을 추진하였다. 초기 계획안은 기존 화장실 공간을 확장해 책심터를 건립하는 안을 추진하였으나, 지하터널 부지와 중복 등 문제로 현재 통합놀이터와 베이비존 사이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양천공원 리노베이션을 위한 여러 과정 가운데 ‘책심터 건립’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고, 공원 이용객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양천공원 책심터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건축물에 대한 태도일 것이다. 기존 감나무와 느티나무 세그루, 베이비존의 잔디밭 등 기존의 부지에 있던 공간과 요소들을 그대로 존중하며,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지은 건축물이 기존 공원 자연물들과 껴안으며 서로 녹아드는 모양새를 이룰 수 있었다.

양천공원 책심터 조성개요

사업개요

- 공사기간 : 2020.2. ~ 2020.12.
- 위치 : 양천구 신정6동 320 양천근린공원
- 연면적 : 465m²(지상1층)
- 구성 : 책심터(북카페, 책 1만여권), 화장실, 수유실, 야외데크 등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돌마감 등
- 소요예산 : 21억 원(서울시 예산)

주요특성

- 도시공원의 새로운 역할과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산책과 휴식 위주의 공원을 소통과 화합, 독서와 이야기, 쉼과 치유의 기능이 있는 ‘통합 커뮤니티공간’으로 재탄생
- 기존 통합놀이터와 연계하여 통합적·유기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계절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한계를 극복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공간 제공
 - ※ 봄·가을 : 미세먼지 쉼터, 여름 : 폭염쉼터, 겨울 : 추위쉼터 등
- 장애인, 영유아, 어르신 등 보행약자의 편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책심터 조성 전



책심터 설계안

출처: 양천구 제공



3. 리노베이션 이후 양천공원의 준공 및 운영 과정

우여곡절을 거쳐 2020년 10월 30일 리노베이션을 마친 양천공원이 재개장하였다. 새롭게 태어난 양천공원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은 잔디광장, 책심터, 화장실, 실개천, 산책로 등 양천공원 곳곳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환영하였다.

처음에는 잔디광장에 대한 어색함도 있었다. 당시에는 잔디밭을 자유롭게 밟고 이용하는 공원이 많지 않아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존 아스팔트광장의 주요 기능이던 농구장이 인근 기존 배드민턴장의 여유공간에 이전되면서, 배드민턴과 농구, 헬스장이 함께 체육공간으로 구역이 분리되었고, 덕분에 잔디광장은 열린 용도로 한껏 활용되었다. 배드민턴, 소규모 축구, 연날리기, 캐치볼 등 역동적인 활동부터 피크닉, 독서 등의 정적인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사랑받았다. 잔디광장은 야간에 더 많은 이용객으로 북적였다. 공원 이용 활성화를 가능하는 최고의 바로미터이기도 한 노점상이 잔디광장 주변으로 성업을 이루었다.

상시 개방되는 야외공간과 달리 집중관리가 필요한 키지트¹ 실내놀이터는 (사)자연의벗 이사장 오창길에서, 책심터는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지영선에서 위탁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놀이행사 및 계절축제 개최, 자원봉사자 양성 등 다양한 공원 콘텐츠를 생산하였다. 자원봉사자로 지역주민들 활용하면서 공원을 넘어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차별화된 운영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현장 실사에서 인상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준공 이후 해를 넘긴 2021년 봄, 양천공원은 새로운 한해를 맞는 단장에 돌입했다. 너른 잔디광장 주변에 플랜테이블¹을 설치하고, 맛있는 잔디광장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잔디광장 주변부로 엠티정원을 자연스럽게 조성하였다. 가을 개장에 맞춰 국화류를 식재하고 주요동선 주변 녹지대는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꽃나무와 그라스류, 야생화를 다양하게 심었다. 통합놀이터 주변으로 벤치를 설치하고, 실개천 한 가운데에는 해바라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워 시각적으로 강조하였다.

1. 플랜터와 벤치를 결합한 구조를 의미한다.



9월 프로그램 숲속음악감상실

출처: 서울그린트러스트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였다. 기존 아스팔트광장 시절부터 이어지던 설날, 추석 농산물장터, 여러 단체의 행사가 이어졌다. 다양한 행사 중 백미는 가을축제라고 할 수 있다. '파크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양천공원 가을축제로 공원 일대가 들쭉였다. 따스한 가을날 잔디광장에서는 노천도서관, 어린이버룩시장, 소규모 놀이시설 운영으로 인파가 가득했고, 베이비존과 책심터는 즉석 공연장으로 변모하였다. 서정성 짙은 포크가수와 신나는 브라스밴드, 정통 재즈콰르텟이 시간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어들었다. 밤에는 무선이어폰을 활용한 야외영화 상영회가 열리는 등 흥미로운 시간이 이어졌다.



4. 양천공원에서 발견한 공원 리노베이션의 과제

보통 공원은 오래될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다. 처음 심어진 작은 나무가 자라 거목이 되고, 서로 어울려 숲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원 내 시설은 시간이 흐르며 낙후된다. 주기적으로 바닥포장도 교체하고, 벤치도 수리를 거듭하다 바꾸고, 설비들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하지만 공원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시설’이 낡아서가 아니라, ‘이용’이 낡아서다. 양천공원을 비롯한 목동신시가지 공원들이 속속 준공된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도시가 달라졌고, 달라진 도시가 공원을 대하는 방식, 즉, 공원 이용방식도 그에 따라 변화하였다.

문제는 공원 리노베이션과 관계없이 도시는 또 계속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공원 리노베이션은 과거의 변화와 미래의 변화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양천공원 리노베이션 과정을 통해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 울창한 나무들의 캐노피를 가져야 한다. 불량한 나무들은 과감히 제거하고 밀식된 가지들도 충분히 솎아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나무 높이에 맞는 너른 산책로와 혼자 걷기 좋은 순환 산책로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계획가에 의해 결정되는 용도가 아닌 이용자가 스스로 용도를 정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양천공원의 잔디밭, 모래놀이터 등이 그러하다. 네 번째, 곳곳에 많은 아름답고 편안한 의자와 쉴 공간이 필수적이다. 의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용자가 늘어난다. 다섯째, 규모가 허락한다면 배드민턴, 농구, 축구, 족구, 게이트볼 등의 공놀이 공간이 별도 구역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숲속도서관, 실내놀이터, 커뮤니티센터 등 공원 규모에 맞는 건축공간은 공원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요소이다. 물론 차원 높게 세대간 융합을 꿈꾼다면 건축의 품격을 갖추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용자군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애인을 위한 Barrier Free 디자인, 통합놀이터 등 세심한 배려 또한 필수적이다. 어르신들과 이들을 위한 공간을 독립적이지만 또 섞여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을 위한 공간, 반려동물과 함께 찾는 이용객 등 다양한 이용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운영 측면에서는 콘텐츠와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자연체험 프로그램, 계절별 문화축제부터 다양한 마켓, 놀이 및 공예, 학습까지 다양한 공원콘텐츠가 추가되었다. 양천공원 책심터처럼 전문 NPO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활짝 여는 방식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주 이용층인 지역주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양천구는 지난 30년 세월을 지닌 양천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공원의 기능을 더하고자 2017년부터 3년간 리노베이션을 시행했다. '전국 최초 베이비존 조성', '전국 최초 실내외 통합놀이터 조성', '도시재생형 공원 리노베이션', '책심터 조성 및 유출지하수 활용'까지 여러 사업이 중층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양천공원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쉼과 치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새 것, 큰 것,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경쟁과 익숙함에서 좀체 빠져나오지 못하는 관성을 떨쳐내며, 공원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태도. 이 태도는 공원 리노베이션의 새로운 기준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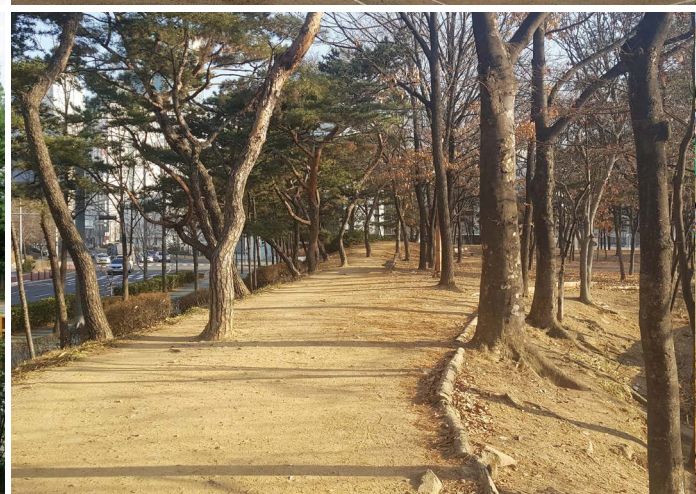


베이비존 조성 후

출처: 양천구 제공



공원 리노베이션 전





공원 리노베이션 후



부록

아시아도시경관상^{ATA},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 목록

아시아도시경관상(ATA) 수상작 목록

한국		중국(중국어권)
- 서울 한강공원	2010	- 마카오 시티오브드림 - 장쑤성 Shengang 거리 - 은거베이 생태지구 - 항저우 유태시 - 응우치완 공원(홍콩) - 타이위안 창평 지구
-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프로젝트 - 제주 올레길	2011	- 칭다오 워터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 바우히니아 빌라 - 난뤄구샹 - 서안 세계원예박람회
- 부산 감천문화마을 - 대전 대청호 오백리길 - 서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2012	- 베이징 no.8 Royal Park - 둥잉시 도시 농업경관 변화 - 정관오 회랑거리(홍콩) - 탕산 에코시티 수환경 관리
- 대구 공공디자인사업 - 서울 송파 워터웨이	2013	- 타이저우 세계정원 - 항저우 전원주택 - 이위안현 주거환경 개선사업
- 부산 남포동 크리스마스축제 - 군산 근대문화거리	2014	- 우전 'The New Wuzhen Mode' - 구이저우성 생태문화 리조트 - 생태도시, 인촨
- 김포 한강야행 조류공원 - 광주 푸른길 공원	2015	- 후저우 습지경관마을 개발 프로젝트 - 구이양 빈민가 재활성화 프로젝트 - 베이징 'Agricultural Ecology Valley'
-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 - 당진 버그네 순례길 - 서울 서초구 양재천	2016	- 완닝 - 충칭 - 인촨 - 취저우
- 부산포개항가도 - 전주 첫마중길 - 서울 강풀만화거리	2017	- 포산시 한림호 농업공원 - 랑우 대추 농업경관 - 멍랜 나원 고성보호 및 개발프로젝트 - 청마이 맹그로브 습지공원
- 부산 청사포 마을 만들기 - 경산 농업용 저수지의 재탄생 - 세종 세종호수공원 조성사업 - 서울 경의선 숲길	2018	- 화이베이 난후 경승지구사업 - 창리 푸타오 마을 생태재생 - 썬야시 생태재생 도시복원사업 - 낙원 쑤저우 정원도시 보호관리사업
- 공주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 광주 광주폴리 프로젝트 - 전주 팔복문화지구	2019	- 광저우 역사문화거리 부흥 프로젝트 - 고가도로 하부 공공공간 활용 프로젝트(홍콩) - 젠사위 워터프런트 재생계획(홍콩) - 포계천 워터프런트 공공환경 재생
- 서울 강동구청사 - 서울 서울숲공원 -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2020	- 광저우 난사 민주만 영산도 워터프런트 지구 뉴타운 개발 프로젝트 - 시안 서함신구 에너지 금융무역구 풍하, 웨이하강 재생 프로젝트

일본		아시아(한·중·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에레누마 공원 - 쿠로가와 온천지 - 모모치 해변공원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아이온 오차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베 정원도시 프로젝트 - 구마모토 성 재건·도시계획 -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후 도시 재건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방콕 리빙 헤리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고시마시 트램 프로젝트 - 구라시키 미관지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쓰에 에니시즈쿠 프로젝트 - 나가사키 데지마 복원사업 및 도시개발 - 간몬해협을 잇는 마을경관 계획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다낭시 - 베트남 호이안 마을경관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봉쿨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카타역 주변 공동 개선사업 - 히메지성 세계문화유산 및 마을보전계획 - 산리쿠 기차길; 일본대지진 회복 - 타케다 역사·마을경관의 환경개선사업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 바그마티강 캠페인 - 스리랑카 독립광장 재건 프로젝트 - 방글라데시 MSDP (Mymensingh Strategic Development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kushidori" 시오자와역 - 'Hagi Open Air Museum' - 지쿠고시 마을경관 조성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탐키 마을경관 - 스리랑카 범람지 개관사업 - 베트남 퀴논 마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쓰야마 - 고마쓰 - 규슈 - 히가시카와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 미얀마 - 베트남 - 방글라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고타카다 쇼와의 마을 - 카시와시 국제캠퍼스타운 프로젝트 - 쿠사쓰 온천지 - 토츠카와무라 새로운 마을만들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반자르마신 워터프론트시티 - 인도 푸네시 역사적 교량의 활용 - 베트남 탐키시 어촌 예술커뮤니티 - 인도 수라트시 다피강의 환경친화적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시티 테리하 마을만들기 -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 마쓰야마 성 자연·역사·배구문화를 융합한 현대 성하마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사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카가얀데오로 수로 재생사업 - 아프가니스탄 아미르샤히드 공원 재개발사업 - 베트남 하노이 풍흥 공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비히로시 숲 조성사업 - 타가와시 산업유산 마을 만들기 - 우치코정 마을 만들기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빈민가 정비 및 커뮤니티 회복 - 인도 수라트시 폐기물매립장 재생 - 방글라데시 푸르바찰 뉴타운 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국제 비즈니스 콤플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이타시 선로부지 보드워크 광장 - 나가사키시 환나가사키항 도시설계 프로젝트 - 미시마시 물의 도시, 도시창조 사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 역사문화유산 부흥 도시재생 프로젝트 - 태국 방콕 역사적 운하 경관 개선 프로젝트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 목록

부문		수상자	작품명	상명
일반	사회 기반시설	(주)디엠엔지니어링	천사대교	대통령상
	특별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이 만들어낸 공유의 공간 반지하	국무총리상
경관 행정	협업 부문	충청남도 당진시	시민참여형 경관자원조사를 활용한 경관행정 효율화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사업 부문	경기도 양주시	폐가를 주민 활동 공간으로, 빈집을 마을 수익 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상
		전라남도 진도군	멋있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일반	자연 경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치마골천의 화려한 부활: 재난은 낮추고, 경관은 높이고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심 속 힐링 숲 베통산,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다	한국경관학회회장상
		국립공원공단 시설처,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지리산 천은사 일원「상생(相生)의 길」	한국경관학회회장상
	가로와 광장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이천동 테마거리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	한국도시계획학회회장상
	주거· 상업· 업무단지	신동아건설(주)	세종 4-1생활권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국토교통부장관상
		한화건설	포레나 여수웅천 더테라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상
		(주)조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DREAM HAUS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상
	공공· 문화 건축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 디애피	남사도서관, 스포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상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광역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대한건축학회회장상
		한국도로공사	국내 최초 본선상공형 휴게소, 서울외곽순환선 시흥 하늘휴게소	대한건축학회회장상
	공공 디자인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관아 주변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초구청 도시디자인과	“도시, 캔버스가 되다! 서초 어번캔버스”	한국공공디자인학회회장상
		김해시 공원녹지과, (주)씨에이티	가야를 세우던 날의 이야기	한국공공디자인학회회장상
	사회 기반 시설	코오롱글로벌(주), (주)삼보기술단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상
		거창군청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Y”자형 출렁다리 및 잔도시스템	대한토목학회회장상
특별	특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파랑고래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에코스쿨〉	국토연구원장상
		건축사사무소 메종 대표 조형장	홍티예술촌	국토연구원장상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 목록

부문		수상자	작품명	상명
일반	문화경관	경남 하동군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	대통령상
특별		인천광역시	인천 제물포 구락부	국무총리상
경관 행정	협업 부문	인천광역시청 도시경관과	‘풍경가도(風景佳島)’ 168의 가치를 찾다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한 “도시·건축·경관 위원회 스마트 심의기반” 구축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경관을 기록하다! 역사를 남긴다!”서울경관기록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및 도시문화공간조성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일반	문화 경관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다산신도시(천년위민도시)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 사업	한국경관학회회장상
	가로와 광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 걷고 싶은 프롬나드 조성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나다! 탁트인 영종로	한국도시계획학회회장상
	주거· 상업· 업무단지	포스코건설	서울 여의도 파크원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의성군	의성 ‘고운마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상
	공공· 문화 건축물	네추럴시퀀스 건축사사무소	남해대교 남해각 전망공원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금천 고가하부공간 활용 공공공간 조성사업 (도심속 조명상자)	대한건축학회회장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대한건축학회회장상
	공공 디자인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Tolling Zone 디자인 개선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악길 유니버설디자인거리	한국공공디자인학회회장상
		전북 익산시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이리대	한국공공디자인학회회장상
	사회 기반 시설	GS건설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세히보기	국토교통부장관상
		금호건설	자라대교	대한토목학회회장상
특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의 재발견 “용봉이 나르샤”	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이 흐르는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유진상가	국토연구원장상

인쇄일	2022년 10월 17일
발행일	2022년 10월 21일
지은이	심경미, 이세진, 배웅규, 김홍원, 이진표, 온수진
엮은이	심경미, 이세진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홈페이지	www.auri.re.kr

ISBN 979-11-5659-375-1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도면은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